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최 배 영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전통 솟대를 활용한 문화콘텐츠 연구

2021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산업예술대학원
문화산업예술학과 전통문화콘텐츠전공
김 속 경

전통 솥대를 활용한 문화콘텐츠 연구

최 배 영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0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산업예술대학원
문화산업예술학과 전통문화콘텐츠전공
김 속 경

인 준 서

김숙경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20년 11월

심사위원장 _____(인)

심 사 위 원 _____(인)

심 사 위 원 _____(인)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산업예술대학원

논문개요

본 논문은 문화원형으로서 전통 솥대에 기반을 두고 문화산업 가운데 국내외적으로 솥대의 모습과 그 의미를 제시하는 전통 솥대를 활용한 문화콘텐츠의 발전 방안을 제시하는 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전통 솥대에 관련된 문화콘텐츠를 전시문화콘텐츠, 공예문화콘텐츠, 교육문화콘텐츠로 구분하고 각각에 대한 사례조사를 시행하였다.

구체적으로 전시문화콘텐츠의 사례조사는 2011년부터 2020년까지 대한민국솥대작가협회가 개최한 전시회 도록을 자료로 수집하여 전시 기간, 전시 장소, 전시 주최, 전시 제목을 제시하고 각 전시회에서 전통 솥대를 활용한 문화콘텐츠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공예문화콘텐츠에 대한 사례조사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대한민국기능전승자회, 대한민국솥대작가협회, 서울디자인재단, 아름솥대, 솥대가 있는 풍경 등의 다섯 곳에서 공예문화상품으로 제작된 장식용품과 생활용품의 사진을 자료로 수집하였다. 이 가운데 공간에 고정적으로 놓이게 되는 장식용품은 벽걸이용, 탁상용, 바닥용 등의 용도별로 세분하여 장식용품명, 소재, 제작자명(제작년도)을 정리하였다. 반면 생활속에서 실제로 사용이 되는 생활용품은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등의 용도별로 세분하여 생활용품명, 소재, 제작자명(제작년도)을 정리하였다. 또한 전통 솥대를 활용한 장식용품과 생활용품의 문화콘텐츠에 반영된 특징을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에듀테인먼트로서 솥대를 교육의 주제로 활용하는 교육문화콘텐츠에 대한 사례조사는 2014년부터 2020년까지 경기공예협회, 대한민국솥대작가협회가 주관하여 유아 및 청소년, 일반 시민, 특수 대상 등에게 실시된 체험프로그램의 사진을 자료로 수집하였다. 이들 대상별로 전통 솥대를 활용한 교육주제, 교육년도, 교육장소, 주관처, 개최처를 구분해 정리하고

교육문화콘텐츠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11년 대한민국숫대작가협회는 광주시립민속박물관에서 <소망을 담고 나는 새, 숫대>라는 제목으로 처음으로 단체전을 시작하여, 매회마다 다양한 숫대들을 전시하고 소개해왔다. 무엇보다 2011년의 전시는 공식적으로 실내 숫대를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본래 자연에서 산출된 소재로 제작된 신앙적 의미를 지녔던 숫대의 모습을 이제는 마을 어귀나 평야에서만 볼 수 있는 시대는 지나가고 있다. 숫대는 실외에서만이 아닌 실내에서도 보고 즐길 수 있는 전시문화콘텐츠가 된 것이다.

둘째, 공예문화콘텐츠로서의 전통 숫대는 장식용품과 생활용품이라는 두 가지의 측면에서 꾸준히 제작이 이루어짐으로써 대중들의 생활 속으로 친근하게 들어가고 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IT 기술의 성장은 전통 숫대와 접목이 되어 전통문화에 대한 창의적인 재해석과 문화적 우수성에 대한 평가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숫대의 이미지가 조형, 회화 또는 나전 등으로 표현이 됨으로써 창의적인 발전의 원동력이 커지고 있다. 이는 전통 숫대 문화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에서 나오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전통 숫대를 활용한 교육문화콘텐츠는 한국문화의 유용한 주제로 입체적, 평면적으로 다양한 대상에게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숫대는 나무 외에도 소재 선택의 자유로움을 갖고 있어 교육대상의 창의성과 예술성을 촉진시킬 수 있으며 숫대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직접 만들어 보는 과정에서 즐거움이 유발되는 오락적 체험성도 지니고 있다.

결론적으로 예술성과 창의성을 지닌 전통 숫대를 활용하는 문화콘텐츠는 그 영역을 더욱 확장해나가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여가성, 대중성, 오락성의 특성을 강화하여 일상 속에서 전통 숫대 문화에 대한 소통과 향유가 확산이 되는 생활문화로 발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의 방법	2
II. 전통 솥대에 대한 문화적 고찰	4
1. 솥대의 개념 및 구성 요소	4
2. 솥대의 역사 및 지역적 분포	12
3. 솥대 문화의 형성 배경	26
4. 솥대 문화의 콘텐츠화	31
III. 전통 솥대를 활용한 문화콘텐츠 사례분석	35
1. 전시문화콘텐츠	35
2. 공예문화콘텐츠	50
3. 교육문화콘텐츠	64
IV. 전통 솥대를 활용한 문화콘텐츠의 발전방안	75
1. 여가활동 장(場)으로서의 전통 솥대 전시 공간	75
2. 전통 솥대 문화상품의 대중화	76
3. 체계화된 전통 솥대의 에듀테인먼트	77
V. 결론 및 제언	80

참고문헌

ABSTRACT

표 목 차

<표 II-1> 전통 솟대 관계 지명의 지역 및 유형별 현황	16
<표 II-2>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명시된 문화산업의 범위	33
<표 III-1> 대한민국 솟대작가협회의 제 1회~제 9회 전시 사례	37
<표 III-2> 공예문화콘텐츠로서 전통 솟대의 장식용품 사례	51
<표 III-3> 공예문화콘텐츠로서 전통 솟대의 생활용품 사례	56
<표 III-4> 유아 및 청소년 대상 전통 솟대 교육문화콘텐츠 사례	65
<표 III-5> 일반 시민 대상 전통 솟대 교육문화콘텐츠 사례	69
<표 III-6> 특수 대상 전통 솟대 교육문화콘텐츠 사례	72
<표 III-7> 전통 솟대를 활용한 문화상품 관련 박람회	77
<표 III-8> 대상별 전통 솟대를 활용한 에듀테인먼트 콘텐츠	79

사 진 목 차

〈사진 II-1〉 농경청동문(국립중앙박물관)	10
〈사진 II-2〉 강원 삼척시 원덕읍 임원리의 솟대	23
〈사진 II-3〉 충남 공주군 탄천면 송학리의 솟대	23
〈사진 II-4〉 충북 영동군 용산면 울리1구의 솟대	24
〈사진 II-5〉 전남 해남군 송지면 금강리의 솟대	24
〈사진 II-6〉 전북 순창군 정산리의 솟대	24
〈사진 II-7〉 경기 파주시 광탄면 용미4리의 솟대	24
〈사진 II-8〉 경남 밀양시 부북면 대항1리 아랫마을의 솟대	25
〈사진 II-9〉 경북 안동시 도산면 태자1동의 솟대	25
〈사진 II-10〉 제주 제주시 삼양3동의 솟대	25
〈사진 III-1〉 대한민국솟대협회 전시 도록	38
〈사진 III-2〉 2016년 울산 북구청 솟대전	39
〈사진 III-3〉 2017년 대구경북솟대작가협회 초대 정기전	39
〈사진 III-4〉 대한민국 솟대작가협회 제 1회 전시	40
〈사진 III-5〉 대한민국 솟대작가협회 제 2회 전시	41
〈사진 III-6〉 대한민국 솟대작가협회 제 3회 전시	42
〈사진 III-7〉 대한민국 솟대작가협회 제 3회 전시 기사	42
〈사진 III-8〉 대한민국 솟대작가협회 제 4회 전시	43
〈사진 III-9〉 대한민국 솟대작가협회 제 5회 전시	44
〈사진 III-10〉 대한민국 솟대작가협회 제 6회 전시	45
〈사진 III-11〉 대한민국 솟대작가협회 제 7회 전시	46

<사진 III-12> 대한민국 솟대작가협회 제 8회 전시	47
<사진 III-13> 대한민국 솟대작가협회 제 9회 전시	48
<사진 III-14> 장식용품1. 송학	53
<사진 III-15> 장식용품2. 희망을 열다	53
<사진 III-16> 장식용품3. 희망과 솟대	53
<사진 III-17> 장식용품4. 소풍	53
<사진 III-18> 장식용품5. 가족	54
<사진 III-19> 장식용품6. 행복한 하루	54
<사진 III-20> 장식용품7. 사랑	54
<사진 III-21> 장식용품8. 전진	54
<사진 III-22> 장식용품9. 희망솟대모음	55
<사진 III-23> 장식용품10. 날마다 행복	55
<사진 III-24> 장식용품11. 북한산 아래 솟대	55
<사진 III-25> 생활용품1. 솟대장식비너	58
<사진 III-26> 생활용품2. 행복	58
<사진 III-27> 생활용품3. 솟대 다식함	58
<사진 III-28> 생활용품4. 솟대 옷칠트레이	58
<사진 III-29> 생활용품5. 행복한 하루	59
<사진 III-30> 생활용품6. 꿈	59
<사진 III-31> 생활용품7. 우리의 희망들	59
<사진 III-32> 생활용품8. 장승	61
<사진 III-33> 생활용품9. 기다림	61
<사진 III-34> 생활용품10. 솟대, 바람, 퍼지다	61
<사진 III-35> 생활용품11. 나전 솟대 풍경	61

<사진 III-36> 생활용품12. 솟대 향초	62
<사진 III-37> 생활용품13. 솟대 등(燈)	62
<사진 III-38> 생활용품14. 비익조	62
<사진 III-39> 생활용품15. 솟대 켈리액자	62
<사진 III-40> 부천시 어린이집 솟대 교육	66
<사진 III-41> 인천시 송도어린이집 솟대 교육	66
<사진 III-42> 인제시 원통초등학교 솟대 교육	66
<사진 III-43> 부천시 범박동 어린이 솟대 교육	66
<사진 III-44> 부천시 산울림 청소년수련관 솟대 교육1	67
<사진 III-45> 강원도 인제 원통 신남 중학교 솟대 교육	67
<사진 III-46> 문경시 산북중학교 솟대 교육	67
<사진 III-47> 서울시 조계사 템플 스테이 정보관 솟대 교육	70
<사진 III-48> 서울시 광화문공원 솟대 교육	70
<사진 III-49> 문경시 근암 서원향교 솟대 교육	70
<사진 III-50> 인천시 신세계백화점 솟대 교육	70
<사진 III-51> 수원시 호매실 장애인복지관 솟대 교육	72
<사진 III-52> 부천시 범박동 경로당 솟대 교육	72
<사진 III-53> 부천시 산울림 청소년수련관 솟대 교육2	73
<사진 III-54> 인제시 원통 운채공방 솟대 교육	73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 민족은 자연적, 신앙적, 인본적, 조형적 영향 속에서 고유한 문화를 창출하여 오랜 역사 안에서 그 맥을 이어왔다. 특히 자연과 함께하는 문화로 전통 솟대의 문화는 소박하고 간결한 표현성을 지니고 있다.

하늘과 땅을 오가는 새를 향한 신앙적 사상으로 우리의 정신문화 내에는 새의 이미지에 대한 상징성도 내포하고 있다. 또한 하늘과 인간 간 소통을 매개하는 의미로 공동체 의식에서나 개인의 삶에서 발생하는 경축 행사의 상징물로서 솟대를 제작하기도 하였다. 이와 더불어 시대에 따라 솟대는 다양한 조형적인 모습과 의미로 발현되고 있다. 오늘날 현대적인 솟대의 모습은 개인의 창의성을 표현하는 예술로도 승화가 되고 있다.

최근에는 솟대에 대한 전시, 공예 그리고 교육 등을 통해 사회적으로 일반인들의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전통 솟대에 대한 역사나 형성 배경에 대한 문화적인 고찰 연구는 상당히 미진하며, 전통 솟대를 활용한 문화콘텐츠가 다각적으로 생성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나 연구 역시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 이에 한국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전통 솟대를 활용한 문화콘텐츠 개발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바이다.

우리나라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명시된 문화콘텐츠는 문화산업의 토대가 되는 문화상품의 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¹⁾을 의미하며 이는 문화원형의 발굴과 재해석에 대한 노력을 통해서 발전이 가능하다. 이러한 문화콘텐츠와 연관된 문화산업은 영화,

1) 법제처, 문화산업진흥기본법, <http://www.law.go.kr>

음악, 게임, 출판, 방송, 만화, 캐릭터, 애니메이션, 에듀테인먼트, 디지털 문화콘텐츠, 디자인, 광고, 공연, 미술품, 공예품, 대중문화예술, 의상, 조형물, 장식용품, 소품, 생활용품, 전시회, 박람회, 축제 등으로 그 범위가 매우 폭 넓다.

전통 솟대는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자연적 환경, 공동체 사회의 민간 신앙, 교육을 중시한 인본적인 삶, 조형적 예술의 특성까지 더해져 문화원형으로서의 가치뿐 아니라 문화콘텐츠로서 무한한 활용의 잠재력도 지니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문화원형으로서 전통 솟대에 기반을 두고 문화산업 가운데 국내외적으로 솟대의 모습과 그 의미를 제시하는 전시문화콘텐츠, 장식용품이나 생활용품 제작 등을 통해 대중들에게 문화상품으로서의 가치를 전달하는 공예문화콘텐츠, 다양한 대상별로 솟대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교육문화콘텐츠의 사례를 분석하여 앞으로 전통 솟대를 활용한 문화콘텐츠의 발전 방안을 제시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2. 연구의 방법

본 연구에서는 사례조사 대상으로 전통 솟대를 활용한 문화콘텐츠의 영역을 구분 지어 전시문화콘텐츠, 공예문화콘텐츠, 교육문화콘텐츠를 선정하였다.

첫째, 전시문화콘텐츠의 사례조사는 2011년부터 2020년까지 대한민국솟대 작가협회가 개최한 전시회 도록을 자료로 수집 전시 기간, 전시 장소, 전시 주최, 전시 제목을 제시하고 각 전시회에서 전통 솟대를 활용한 문화콘텐츠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둘째, 공예문화콘텐츠에 대한 사례조사로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대한민국의전승자회, 대한민국의솓대작가협회, 서울디자인재단, 아름솓대, 솓대가 있는 풍경 등의 다섯 곳에서 공예문화상품으로 제작된 장식용품과 생활용품의 사진을 자료로 수집하였다. 이 가운데 공간에 고정적으로 놓이게 되는 장식용품은 벽걸이용, 탁상용, 바닥용 등의 용도별로 세분하여 장식용품명, 소재, 제작자명(제작년도)을 제시하였다. 반면 생활 속에서 실제로 사용이 되는 생활용품은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등의 용도별로 세분하여 생활용품명, 소재, 제작자명(제작년도)을 정리하였다. 또한 전통 솓대를 활용한 장식용품과 생활용품의 문화콘텐츠에 반영된 특징을 분석하였다.

셋째, 에듀테인먼트로서 솓대를 교육의 주제로 활용하는 교육문화콘텐츠에 대한 사례조사는 2014년부터 2020년까지 경기공예협회, 대한민국의솓대작가협회가 주관하여 유아 및 청소년, 일반 시민, 특수 대상 등에게 실시된 체험프로그램의 사진을 자료로 수집하였다. 이들 대상별로 전통 솓대를 활용한 교육주제, 교육년도, 교육장소, 주관처, 개최처를 구분해 정리하고 교육문화콘텐츠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II. 전통 솟대에 대한 문화적 고찰

1. 전통 솟대의 개념 및 구성 요소

1) 전통 솟대의 개념

솟대란 나무나 돌을 이용하여 만든 새를 장대나 돌기둥 위에 얹힌 마을 신앙의 대상물을 의미한다. 직립한 장대에 새 모양의 조형물이 올려져 있는 것이 솟대의 외형상 특징이다. 이러한 솟대의 구조적 모습은 한국, 만주, 몽고, 시베리아, 일본 등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난다.

솟대의 개념 속에는 지하, 지상, 하늘 세계의 수직적인 우주 층을 연결하는 통로로서의 뜻을 지니고 있다. 솟대의 장대를 구성하는 나무는 지하의 땅속까지 뿌리를 뻗어 내리고 지상과 하늘로 솟아오르는 식물의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나무와 결합된 새 역시 하나의 신앙적 요소로 여겨져 왔다. 하늘의 새는 족장(族長), 샤먼(shaman), 천신(天神)의 사자 역할을 하며 천상과 지상의 사이에서 소통의 역할을 담당한다고 보았다. 이렇듯 새와 나무 장대의 구조는 하늘에 인간의 소망을 전달하는 기능으로 상징화되었다.²⁾

솟대는 청동기시대 농경이 시작되면서 다양한 의미를 함축하게 된 것으로 유추되고 있다. 우리나라 경우에도 솟대는 농경문화와 더불어 지속적으로 존재해 왔다. 솟대는 대체로 마을 입구에 단독으로 세워지게 되지만 장승, 선돌, 탑(돌무더기), 신목 등과 함께 세워지기도 한다. 솟대와 유사한 의미를

2) 최술, 한국 전통솟대를 통한 미술문화교육방안 연구, 상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p.5.

지니는 것으로는 장대를 세우는 짐대의 입간(立竿) 민속이 있다. 즉 서낭대, 벧가리대, 영동대 등 높은 장대를 세우는 풍습이 존재해 왔으나 솟대와는 그 역할이 다르게 표현되어왔다.³⁾ 이는 대표적으로 보리, 콩 등의 곡물을 형겅에 싸서 장대 위에 매달아 농경의 풍요를 기원해 온 것이다. 전국적으로 마을 전체의 안녕을 기원하는 솟대에 비해 짐대는 농사를 위주로 하는 일부 지역에 한정되어 풍년을 소원하는 의미가 강하게 나타난다.

시간이 흐르면서 솟대의 의미가 점차 다양해지면서 풍수지리사상인 행주형(行舟形)⁴⁾의 지세 그리고 입신양명(立身揚名)을 뜻하는 과거 급제의 기념을 위한 화주대(華柱臺)로도 발전이 되었다. 이는 솟대가 하늘과의 소통을 잇는 마을의 신앙으로부터 개인적 의미의 경축으로까지 공동체와 그 구성원들에게 정신적 표현물이 되어왔음을 말해준다.⁵⁾

이상을 종합해보면 청동기시대 농경문화에 있어 언제부터 솟대가 신앙적 의미로 체계화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우리 민족의 고유문화로 민중적, 신앙적 기원의 대상이 되어왔다. 또한 솟대는 마을신앙의 일환으로 우주관을 비롯해 새 신앙 그리고 입간 민속과도 연결성을 지니며 계승되어왔다. 나아가 공동체 중심에서 개인 중심으로 의미가 변화, 발전되어온 조형물이다.

3) 김세철, 솟대신앙의 커뮤니케이션적 특성과 의미, 언론과학연구 5(3), 2005, p.96.

4) 문화콘텐츠닷컴, <http://www.culturecontent.com>

풍수지리에서 보면 행주형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영향을 주는 양기(陽氣)의 풍수에 해당하는 형국을 말한다. 즉 사람과 재물을 가득 싣고 출발하려는 배가 구성 요소를 모두 갖추어 길하다고 보는 것이다.

5) 이필영, 솟대, 대원사, 1999, p.38.

2) 솟대의 구성 요소

솟대의 요소는 기본적으로 돌이나 나무로 조각한 새와 장대로 구성되어 있다.

(1) 새

한국의 고대 신화와 제사의례 속에서 새는 태양의 상징으로, 하늘과 땅을 매개하는 존재로, 농신(農神)과 연관된 농경의례의 신물로, 그리고 조상신이 있는 저승과 이승을 연결하는 장송의례(葬送儀禮)의 사자로 신성시되어왔다.⁶⁾

우리나라의 새 숭배 사상은 고구려의 절풍(折風)⁷⁾, 신라의 금관(金冠)과 조익형(鳥翼形) 관식(冠飾) 등에서도 그 원류를 찾아볼 수 있다. 이렇듯 한국 문화 속에 새 숭배 사상은 다양한 문양과 조각으로 표현되고 전승되어왔다. 따라서 고고학, 인류학, 국사학, 민속학, 복식학 등의 여러 학문 분야에서 새는 다양한 상징적 의미로 해석되었다.⁸⁾

솟대에 올려져 있는 새의 종류는 특별한 규제는 보이지 않으나 농경사회에서의 대표적인 형상으로는 오리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으며 그 밖에 까마귀도 경남과 제주 지역의 일부에서 나타난다. 이에 솟대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오리와 까마귀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6) 이장웅, 한국 고대 새 관념의 변화, 한국고대사탐구 31, 2019. p.327.

7) 『북사(北史)』에 보면, 고구려인들은 모두 머리에 고깔[弁]과 같은 형태의 절풍을 썼다고 한다. 사인(士人)들이 쓰는 것은 2개의 새 깃을 꽂고, 귀인이 쓰는 것은 붉은 비단[紫羅]으로 만들어 금은으로 장식을 하여 소골이라 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8) 김중순, 한국문화원류의 해명을 위한 문화적 기호로서 ‘새’의 상징, 한국학논집 56, 2014, pp. 204-205.

① 오리

오리는 하늘, 땅, 물 등의 영역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일반 들새나 산 새에 비해 신앙적 상징성을 강하게 지니고 있다. 한국문화 원류의 문화적 기호로 새의 상징성을 연구한 김종순⁹⁾은 오리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미를 밝혔다.

첫째, 오리는 계절이 바뀌면 다시 날아온다는 이유로 산 자와 죽은 자의 세계를 넘나드는 영혼의 존재로 이승과 저승을 통교(通交)할 수 있는 대상으로 여겨졌고, 이를 통해 조상이 온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었다. 오리의 순환적 이동은 초자연적 존재로 여겼을 가능성이 있다. 이로 보면 오리는 인간의 세계와 신의 세계를 넘나들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새로 상징화되었다.¹⁰⁾

둘째, 오리는 천둥새(Thunder Bird)로도 불리며 천둥, 번개, 바람, 비를 다스리는 존재로 간주 되어왔다. 오리가 소리를 내며 울고 날갯짓을 하면 그 소리가 지상까지 올라가 들린다고 하여 천둥새로 불렸다. 특히 벼농사를 위주로 하는 사회에서 오리는 비를 가져다주는 존재로 인식이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대규모로 벼농사가 이루어지는 남부 지역에서는 오리를 솟대 위에 많이 엮었는데¹¹⁾ 이 배경도 바로 천둥새의 개념이 적용된 것으로 사료된다. 이로 보면 오리는 계절이 바뀌는 변화를 알려주고 농경에 필요한 비를 때에 맞추어 내리고 바람도 고르게 불어주는 존재가 되어왔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오리는 잠수의 능력을 가진 물새로 홍수나 재해로부터 마을을 구할 수 있다고 여겨져 왔다. 이규보의 『동국이상국집(東國李相國集)』 <동명왕편>

9) 김종순, 한국문화원류의 해명을 위한 문화적 기호로서 ‘새’의 상징, 한국학논집 56, 2014, pp.226-231.

10) 박창옥, 개금 기법을 이용한 전통문화상품 디자인 연구: 조류 상징물 오리 형상을 주제로, 정보디자인학연구, 16, 2011, p.51.

11) 신호재, 민간신앙에 따른 조형물에 관한 연구: 솟대를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p.39.

을 보면 주몽에 대항하는 비류국(沸流國)의 송양(松讓) 왕이 장맛비가 내릴 때 갈대 밧줄로 흐르는 물을 횡단하며 오리 말[압마(鴨馬)]을 탔는데 백성들이 그 밧줄을 잡아 당겼다고 기록되어 있다. 여기서 오리 말은 홍수 속에서 살아남게 할 수 있는 존재였던 것이다.

넷째, 오리는 다산과 풍요의 상징적 의미도 갖고 있었다. 오리는 닭보다 크고 무거운 알을 많이 낳는다. 이에 생명의 신비나 생식의 근원을 상징해 파종 때 사람들이 주머니 속에 알을 넣고 있거나 밭에 알을 묻는 관습도 있었다. 이러한 상징성은 농경사회의 숫대에 오리가 가장 많이 놓인 이유가 되었다.

② 까마귀

고대에 까마귀도 신조(神鳥)로 여겨졌다. 신화에 등장하는 까마귀는 천신이며, 때로는 천상과 지상 간의 신조(messenger)의 역할을 담당하기도 했다.

태양신의 성격을 지닌 북부여 시조 해모수(解慕漱)가 머리에 쓴 관은 오우관(烏羽冠)이었다. 또한 신라 연오랑(延烏郎)과 세오녀(細烏女)가 신라를 떠난 후 해와 달의 빛이 사라졌다는 이야기 가운데 이들 이름에 들어있는 ‘오(烏)’라는 글자에서 까마귀가 태양신으로 여겨졌음을 말해준다. 까마귀는 신화뿐 아니라 고구려의 고분의 벽화에도 삼족어(三足鳥)로 등장한다. 즉 둥근 원 안에 그려진 삼족어는 태양신의 모습으로 전해진다. 일중삼족오(日中三足鳥)라고 하는 둥근 원 안의 삼족어는 태양의 상징인 것이다. 이러한 까마귀 표징은 상감청자, 청동제 유물 등에서도 표현되어 있다.¹³⁾

또한 신화와 신앙 체계 내에서 까마귀는 하늘, 태양, 바다, 바람을 지배하

12) 『東國李相國集』, 古律詩, 東明王篇, 霖雨七日. 漂沒松讓都. 王以葦索橫流. 乘鴨馬. 百姓皆執其索. 朱蒙以鞭畫水. 水即滅.

13) 알렉산드라 막시모드, 알타이 문명벨트의 구명을 위한 야쿠트와 한국문화의 새 상징 비교 연구, 계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8, pp.73-74.

고, 인간의 삶에 필요한 것을 가져오는 새로 여겨졌다. 그러나 까마귀는 신성한 존재로만 머물지는 않았다. 인간과 함께 살아가면서 부정적 측면의 의미와 듣기에 좋지 않은 울음소리 그리고 썩은 고기나 죽은 자에게 물려드는 습성으로 긍정과 부정의 이중적 의미를 갖고 있었다.

대표적으로 제주와 경남 해안 지역에서는 솟대 제작 시 까마귀를 여러 가지 측면으로 해석한다. 예를 들어 첫째, 솟대 위에 없히는 데 있어 흉조인 까마귀를 장대로 뚫어서 놓는 것은 화살로 꿰뚫어 잡아 재액을 하려는 방책이었다. 둘째, 솟대 위의 까마귀를 아이들이 돌을 던져 넘어뜨리는 것은 액을 물리치고 복을 비는 것과 같은 의미로 해석되었다. 이렇듯 제주와 경남 해안 지역에 세워진 솟대에 얹힌 까마귀 모습은 신성한 존재로서의 위상과 재액을 예방하여 불길한 기운을 잡는 존재로서의 이중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사료 된다.¹⁴⁾

(2) 장대

장대는 초자연적 존재와의 연결 통로로 해석이 된다. 나무의 뿌리는 땅의 생명력을 움트게 하고, 하늘을 향하는 가지는 우주의 세계로 이어지는 역할을 한다. 이는 천상의 세계(상계)와 지하세계(하계)를 연결하는 우주의 기둥인 것이다. 즉 장대는 신과 인간의 초자연적 정신적 매개체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다.¹⁵⁾

이러한 우주관의 의식으로 종교의례 내에서 장대가 가진 역할을 잘 나타내는 것으로 삼한 시대의 소도에서 행해진 입대목현령고(立大木縣鈴鼓)를 살펴볼 수 있다. 이는 『삼국지』 위지동이전 기록에 기록으로 등장한다. 즉

14) 이필영, 솟대, 대원사, 1990, p.73.

15) 나종록, 나무에 나타난 초월적 세계연구: 본인 작품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p. 1.

입대목현령고는 한, 마한 등에 존재했으며 3세기 전까지 중간 규모 이상의 마을이나 유적에서 행해졌다.

장대를 세우는 민속이 지금까지도 이어져 온 것이 곧 솟대인 셈이다. 예를 들어 단군신화에 등장하는 신단수(神壇樹)는 박달나무를 이용해 단(檀)을 만들어 신이 하늘에서 지상으로 내려왔다고 하는 나무를 뜻한다. 이는 신격화된 장소에서 나무가 신과 인간 세상의 통로의 역할을 한 것이다. 또한 <사진 II-1>의 농경청동문에서 발견된 나뭇가지 위에 두 마리의 새가 그려진 모습은 솟대와 세계수(世界樹)의 관계를 보여준다.¹⁶⁾ 세계수는 우주의 기원과 구조 및 삶의 근원을 상징한 나무를 말한다.



<사진 II-1> 농경청동문(국립중앙박물관)

출처 : <https://blog.naver.com/ssk567567/221216289291>

16) 나종록, 나무에 나타난 초월적 세계연구: 본인 작품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pp.10-11.

한편 비가 때에 맞추어 알맞게 내리고 바람이 고르게 부는 우순풍조(雨順風調)를 기원하기 위해 세우는 솟대는 장대에 떡으로 용의 모양을 그리거나 흰 새끼 줄로 용트림을 하여 나선형으로 감아올렸고, 때로는 푸른색과 붉은색 형견을 비스듬히 감았다. 강원도 홍천 북방면의 장대는 용대라고도 불리며 용트림한 모양으로 하늘에 올라 비를 내려주는 풍농의 상징으로 여겨졌다. 호남의 일부 마을에서는 장대 하부에 칭칭 줄을 감아 놓아 이를 용으로 생각하고 화재의 방지책으로서 의미도 지녔다. 오리를 엮은 장대는 대홍수에도 잠기지 않다는 생각이 깃들여 있었다.¹⁷⁾

경북 영일군 마을 입구의 선돌 바위 옆에 있던 솟대는 성주 기둥으로 지칭되었다. 이는 마을기둥과 세계기둥의 흔적으로 보인다. 곧 집안의 평안과 부귀를 관장하는 최고의 가택신인 성주로 솟대의 장대가 마을 전체를 주관하는 마을 신으로 여겨져 마을 입구의 성역에 세워진 것이었다.¹⁸⁾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솟대를 구성하는 장대는 천상과 인간 간 소통의 역할을 담당하며 자연의 재해로부터 마을 사람들을 보호하고 풍농(豐農)과 안녕을 가져오는 기능을 한다고 여겨졌다.

17) 이필용, 솟대, 대원사, pp.49-54.

18) 신호재, 민간신앙에 따른 조형물에 관한 연구: 솟대를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p.36. 재인용.

2. 솟대의 역사 및 지역적 분포

1) 솟대의 역사

아시아의 민족에게서 나타나는 새 숭배에 기반을 둔 청동기의 조형물에서 솟대의 역사성이 나타난다. 우리나라 솟대의 역사는 농경문청동기가 대전지역에서 발견되면서 청동기시대로 언급되는 것이 통설이다. 이 시대는 정착 생활로 이어지는 농경사회에서 공동체 문화가 형성되고 그러한 역사 속에 솟대는 하나의 문화로 이어져 내려왔다. 농경문청동기에 나타난 나뭇가지에 두 마리의 새가 마주 보고 있는 모습과 농경이 시작된 청동기시대의 정착 생활에서 솟대의 신앙적 기능의 필요성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청동기 제조 기술의 발달을 비롯해 농업생산력을 지닌 부족과 그렇지 못한 부족 사이에 지배층과 피지배층이 발생했다. 지배 부족들은 정치적, 종교적 이념을 우주 나무(Cosmic tree)와 하늘 새(Sky birds)에 담아 제천의식을 행함으로써 솟대의 신앙이 성행하였을 것으로 추측되어지며 우주 나무는 인간과 하늘 사이에서 소통의 매개로서 의미를 나타냈고, 하늘 새를 우주 나무에 엮음으로써 우주 층을 왕래하는 사자로 신성시했다.¹⁹⁾

삼한 시대에는 각 부락에서 천신에게 제를 올리는 소도(蘇塗)가 있었다는 기록이 『삼국지』 위지동이전에 남아 있다. 고대 마한은 부락 집단으로 한강 이남에 위치한 지금의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지역을 말한다. 이 지역은 정치적으로 통일된 집단은 아니었지만 제사를 주관하는 천군이 존재하여 별읍인 소도에서 해마다 5월과 10월에 제사를 지냈다. 즉 매년 5월 제사를 지낼 때 수십 명의 사람들이 모여 땅을 밟고 구부렸다 치켜들었다 하면서 손과 발로 서로 장단을 맞추었다. 10월 농사일을 마치고 나서도 이렇게 행했

19) 이필용, 솟대, 대원사, pp. 94-104.

다. 소도에서 이루어진 5월과 10월의 제사는 계절제(季節祭)이자 마을의 공동제(共同祭)로 이때는 큰 나무를 세우고 방울과 북을 매달아 놓았다²⁰⁾. 이는 소리로 정령을 불러 초인간적인 세계로 닿게끔 하는 장대의 역할로 보인다. 하회 별신굿, 은산 별신제, 강릉 단오제 등과 같은 동제에서 방울을 단 신간이 신의 하강로 여겨져 신격의 대상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의 의미이다. 이러한 소도에서 장대의 꼭대기에 새를 얹혀 솟대임을 표시하는 상징이 존재했을 것으로 유추되지만 종래에 이를 인식하지 못했던 것은 『삼국지』 위지 동이전을 기록한 고대의 관리가 새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고 방울과 북만을 기록했기 때문이라는 논의도 있다. 이렇듯 소도에 새가 기록되지 않은 상황²¹⁾이지만 ‘한’ 족의 한강 문화에 있어 ‘새’ 토템 사상은 고조선 건국 후 시조신이자 천신인 단군 신앙과도 관련하여 소도 별음이 종교적 성소로 제도화 된 것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²²⁾

솟대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한 손진태는 「소도고(蘇塗考)」에서 소도의 음이 솟대와 유사하다는 견해에 의거하여 ‘솟대 = 소도’ 라는 음운론의 방식에서 솟대라는 말이 나오게 되었다고 보았다. 그의 주장에 의하면 솟대는 마한의 소도를 음역한 것으로 ‘솔대’ 등과 통용되던 용어로 이해되었다. 이에 솟대는 소도에서 비롯되었고, 소도는 별음이 아니라 입대목의 마한어라는 주장이다. 즉 소도를 ‘솟대’의 한자 차음 표기한 것으로 보았던

20) 김기탁, 동신제와 솟대 신앙: 상주 원흥리의 솟대를 중심으로, 한민족어문학 16, 1989, pp.16-17.

21) 진용하, 한국민족의 기원과 형성에 대한 ‘한’ ‘맥’ ‘예’ 3부족 결합설, 대한민족학술원논문집 55(1), 2016, p.35.

영국과 독일의 사회사학과와 프랑스의 아날학파는 유물, 유적, 그림, 조각 등을 문헌 기록보다 더 중시하여 증거 자료로 사용한다. 고대 문헌의 기록은 기록자의 편견, 권력자와 지배자의 견해가 깊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사 방법을 소도(솟대)에 적용하면 한족의 ‘새’ 토템이 부각된다. 『삼국지』 위지 동이전에 부주의로 ‘새’를 기록하지 않았으니 이를 필사 운문한 중국의 고문헌들은 모두 솟대의 ‘새’를 기록하지 않았던 것이다. 따라서 문헌 고증 사학에만 의존하면 ‘한’ 족은 토템이 없는 것으로 오해하게 된 것이라 해석된다.

22) 진용하, 한국민족의 기원과 형성에 대한 ‘한’ ‘맥’ ‘예’ 3부족 결합설, 대한민족학술원논문집 55(1), 2016, p.37.

것이다.²³⁾ 그러나 아직까지 학문적으로 소도의 원형이 솟대라는 논리는 증명되지 못하고 있다. 솟대라는 단어가 사용된 것은 100년도 채 안 되었고, 지금까지 마을 현장에서는 솟대라는 용어보다 짐대 라는 용어가 보다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솟대는 목부비공형(木鼻飛空形) 설화 속에서는 신라 시대 말기의 택지법과도 연관이 된다. 이는 나무로 깎은 오리를 날려 사찰이나 집의 택지를 정하는 방법이다.²⁴⁾ 또한 고려 시대 절에 세워진 철, 돌, 나무로 된 당간(幢竿)은 새의 형상을 올리지는 않았지만 장간(長竿)을 세우는 풍속을 찾아볼 수 있다. 중국을 통해 들어온 당간은 삼국시대부터 조선 시대 초기까지 세워졌으며 짐대라는 명칭이 솟대와 함께 활용된 것으로 보아 솟대는 입간의 조형물로 그 역사성이 인정되어온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²⁵⁾ 일례로 고려 시대 불교의 당간지주(幢竿支柱)와 솟대의 관련성은 소도 신앙의 솟대가 습합되면서 불교의 중심지인 경주 지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다.²⁶⁾

실존하는 솟대로서 가장 오래된 것은 17세기경에 건립된 전라북도 부안군 신안면 대벌리의 석조간(石鳥竿)으로 이는 오리 짐대에 대한 문헌이 없는 상황에서 석조간(石鳥竿)로는 가장 오래되었으며 동쪽, 남쪽, 서쪽의 방향에 세워지는 방식이 원형적인 형태로 평가되고 있다.²⁷⁾

23) 송화섭, 조선후기 부안의 돌짐대와 석당간, 역사문화학 15(1), 2012, pp.267-268에서 재인용.

24) 송화섭, 신라말 밀교의 택지법과 솟대의 기원, 지방사와 지방문화 15, 2002, p.53.

목부비공형(木鼻飛空形)이라는 용어는 송화섭이 만든 신조어임을 밝혀둔다. 전래설화에는 새들을 하늘에 날려 보내는 이야기가 전승된다. 그 가운데 오리를 만들어서 날려 보내는 것을 목부비공형이라는 용어로 만든 것이다.

25) 송화섭, 조선후기 부안의 돌짐대와 석당간, 역사문화학 15(1), 2012, pp.274-275.

26) 이종철, 입대목 솟대 제의의 등장과 전개에 대한 시론, 한국고고학회지 106, 2018, pp.9-13.

27) 송화섭, 조선후기 부안의 돌짐대와 석당간, 역사문화학 15(1), 2012, p.278.

2) 솟대의 지역적 분포

솟대는 오랜 역사와 더불어 다양한 지역에 분포, 존재해 왔다. 그러나 오랜 세월로 나무를 이용하여 만들어진 입간 민속인 솟대는 소재상 보존의 한계로 그 지속성을 입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1920~1930년대 민속학자인 송석하, 손진태, 아끼바(秋葉隆), 무라야마(村山智順) 등도 연구 자료로서 솟대를 희귀한 것으로 생각하였다.²⁸⁾

결국 전통사회에서 장승과 함께 마을신앙의 대상으로 세워진 솟대는 현재까지 그 모습이 현존하고 있는 곳이 많지는 않다. 그러나 솟대배기, 화주대배기, 효대배기, 진대배기, 짐대배기 등의 지명이 남아 있다.

1966년부터 1986년까지 발간된 한글학회의 『한국지명총람』에서 남한 지역의 솟대 관련 지명으로 625개소가 확인되어 과거 솟대가 각 지역에서 차지한 중요성을 파악할 수 있다. <표 II-1>을 통해 솟대 관련 지명을 살펴보면 솟대는 중부 지역보다는 남부 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하였다. 상대적으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일대에서는 솟대의 분포가 적은 반면 전라남도는 전국 솟대의 34.6%가 분포되어 있었다. 그 중에서도 강진, 보성, 해남, 함평, 영암, 승주 등 해안 지역에 보다 많이 밀집되어 있었다. 다음으로 경상북도의 솟대가 전체의 25.5%, 경상남도가 15.6%, 충청남도가 4.3%를 나타냈다. 이로 보면 영남과 호남의 솟대가 전국적으로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유형별로는 중 일반 솟대가 415개, 급제 기념 솟대가 199개, 행주형 지세 솟대가 11개이다. 여기서 일반 솟대는 전라남도, 급제 기념 솟대는 경상북도에서 가장 많이 나타났다.

한편 1920~1930년대에 평안도와 황해도 지역을 조사한 손진태는 정상 부위에 새 모양이 없던 솟대는 없고 과거급제 시 세워진 용두를 조부(彫附)한

28) 이필영, 솟대, 대원사, 1990, p.25.

것만 있어 북한 지역에서는 공동체 솟대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그러나 1923년 함경도 함흥 지역의 창세가(創世歌)를 살펴보면 마을에 집집마다 솟대가 세워진다는 표현이 남아 있다.²⁹⁾ 또한 평안도에서는 자신의 체격이나 힘보다 크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을 비유하여 ‘당나귀 잔등 위에 솟대 실은 것 같다’는 속담이 사용되어 북한 지역에서도 일반 솟대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일제강점기 민속학자들이 북한의 솟대 자료를 거의 찾지 못한 것은 솟대 신앙이 발농사를 중심으로 분화, 발전되어가는 단계에서 북한은 지리적 이유로 발농사가 대부분이었던 것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더욱이 지금은 북한과의 단절로 솟대에 관한 연구는 한계를 갖고 있다.³⁰⁾

<표 II-1> 전통 솟대 관계 지명의 지역 및 유형별 현황

유형 지역	일반 솟대	행주형 지세 솟대	급제 기념 솟대	합계	비율(%)
경기	16	-	2	18	2.8
충남	21	-	6	27	2.0
충북	8	-	4	12	1.9
전북	67	-	9	76	4.3
전남	169	7	41	217	12.1
강원	6	-	6	12	34.7
경북	84	2	73	159	25.5
경남	38	2	58	98	15.7
제주	6	-	-	6	0.9
총계	415	11	199	625	99.9

출처: 이필영, 솟대, 대원사, 1990, p.20의 내용을 본 연구자가 재정리함.

29) 박성수, 우리 민족이 남긴 창세가(創世歌)의 비밀,

<http://www.brainmedia.co.kr/brainWorldMedia/ContentView.aspx?contIdx=14341>

30) 이필영, 솟대, 대원사, p.25.

이렇듯 사라져가고 있는 솟대에 관련해 1988년 국립민속박물관에서 경기도와 강원도를 시작으로 현지 조사를 실시해 지역별 솟대 신앙에 대한 조사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는 각 지역의 장승과 솟대 신앙에 관한 조사로 아직까지 그 명맥이 남아 있는 곳을 찾아 정리한 것이다. 이 조사보고서 역시 솟대 신앙이 남부지방과 해안지방에 중점적으로 분포된 것은 농경 중심으로 존속되어온 우리 솟대 문화의 일면을 보여준다. 국립민속박물관의 조사자료를 통해 솟대의 지역별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강원도의 솟대

강원도는 태백산맥을 끼고 대관령을 분수령으로 영동과 영서 지역으로 분리되어 있다. 둘 중 영서 지역에는 약간의 솟대가 남아 있는 반면 영동 지역은 해안 마을을 중심으로 솟대, 짐대 또는 진또배기(솟대의 강원도 방언)가 마을 수호신으로 모셔지고 있다(사진 II-1). 이는 바다를 주 무대로 활동하는 공동체가 발달 되어 해상에서의 안전과 풍어를 빌어 주는 신간으로 염원을 상징하는 공동체적 복합 신앙의 조형물로 유추된다. 특히 영동 지역의 진또배기 솟대의 형태는 다른 솟대와는 다르게 만들어졌다. 소나무를 잘라 3~4미터 장대 위에 새 모양의 조각 3개를 세 갈래 나뭇가지를 받침대로 각각 끝에 고정시켰다. 각기 다른 의미를 부여하여 새의 방향을 다르게 정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3마리의 새가 같은 방향으로 마을 밖의 해안이나 산을 가리켜 그곳에서 일어나는 삼재(三災: 수재·화재·풍재)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 또 다른 모양의 강원도 솟대는 골막이(골매이)³¹⁾ 신앙으로 솟대를

31) 골매이는 영남, 강원 등지의 마을 수호신으로 대개 그 마을에 최초로 정착한 시조신(始祖神)이나 마을의 창건신(創建神)으로 ‘액운을 막는다’, ‘마을을 수호한다’는 뜻이 결합된 형태이다.

장승과 함께 마을 입구에 세웠다. 명칭도 짐대, 진대, 짐대배기, 진대배기, 진또배기, 오릿대, 진대 성황 등으로 불렀지만 대부분 명칭과는 상관없이 골막이 성황으로 통칭되었다. 이러한 골막이 성황은 재앙으로부터 마을을 보호해준다는 민간신앙의 발로라고 할 수 있다.³²⁾

(2) 충청남도의 솟대

충청남도는 서해안과 중부 내륙에 위치하여 금강과 차령산맥이 펼쳐진 지역이다. 충남 지역의 솟대(사진 II -2)는 영동이나 호남 지역처럼 단독으로 세우는 경우가 없으며 장승 등의 신앙 대상물과 함께 있는 짐대였다. 그러나 경기 지역의 솟대처럼 장승 옆에 잘 보이지 않게 세우지 않고 장승 높이의 두세 배 되게 높이 세웠다. 건립 동기도 대개 장승과 더불어 마을의 재액과 초복을 위한 것이었다. 충남 지역에서는 솟대라는 호칭보다는 짐대(진대)로 불리며 오릿대, 수살대로도 불렸다. 솟대 위에 얹히는 새는 전부 오리로 만들었다. 장승의 경우 돌장승도 나타나지만, 솟대는 모두 나무로 제작되었다. 장대는 산 나무에만 오리가 앉는다는 속설이 있어 나무껍질을 벗기지 않는 마을도 있었으며, 일부 마을에서는 오리를 좀 더 풍요롭게 보이기 위해 부리에 붕어를 물리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오리를 사실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눈과 코를 먹으로 그리고 깃털도 표현하는 경우가 있었다. 솟대 위의 새는 한 마리를 앉히고, 두세 마리의 새를 얹힌 것은 없었다. 한편 과거급제 기념으로 소나무나 대나무로 만든 솟대를 세울 때면 위에 봉황과 용을 앉히고 마을 밖에 홀로 세워졌다.³³⁾

32) 국립민속박물관, 강원지방 장승·솟대신앙, 1988, pp.20-25.

33) 국립민속박물관, 충남지방 장승·솟대신앙, 1991, pp.409-410.

(3) 충청북도의 솟대

충청북도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내륙으로 태백, 노령, 차령, 소백 산맥으로 둘러싸여 경계를 이루고 있다. 평지보다는 산간분지가 형성되어 있는 구조적, 지리적으로 요인으로 외부와의 접근성이 용이하지 못한 반면 내부적 응집력을 강화하여 전래문화를 보유하는 요인이 되었다.

이 지역 역시 마을 입구에 장승과 함께 솟대(사진 II-3)를 세웠으며, 12개소에 아직 솟대가 남아 있다. 명칭상 짐대 4기, 솟대 3기, 그 밖의 명칭으로 전승되어왔고 진대나 짐대는 서로 혼용되었다. 행주형 돛대를 짐대. 진대라고 함은 이 지역에서 솟대의 보편적 명칭은 짐대 또는 진대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솟대는 장승과 유사한 신앙적 성격으로 간주 되었으나 장승과는 달리 과거급제 기념을 위해 세운 솟대, 행주형 지세 솟대, 조상의 묘소 앞에 세우는 솟대 등은 개인을 위한 기념물의 성격을 지녔다.³⁴⁾

(4) 전라남도의 솟대

전라남도 지방은 지리적으로는 우리나라 남서부에 위치하며 동쪽으로 섬진강과 소백산을 경계로 경상남도과 접하고 있는 산물이 풍부한 지역으로 서쪽은 황해, 남쪽은 남해, 북쪽은 노령산맥을 경계로 전라북도과 접하고 있다. 전통문화로 동편제와 남도의 서화 등 굽직한 문화를 창출하였으며,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진도의 씻김굿, 함평의 농요, 광산의 고싸움이 전승되고 있다. 공동체 신앙은 전라남도의 기질과 인정을 담아 왔다.

민속 신앙물의 대상으로 솟대(사진 II-4)의 새는 대부분이 오리이지만 해남군 송지면 서정리 치소마을의 경우에는 매를, 진도군 고군면 석현리의 경

34) 국립민속박물관, 충북지방 장승·솟대신앙, 1994, pp.270-272.

우에는 가치를 올려놓기도 하였다.³⁵⁾

(5) 전라북도의 솟대

전라북도는 우리나라 서남부에 위치하여 동쪽으로 경상남도, 북쪽으론 충청남도 그리고 전라남도와 서쪽을 접하고 있어 타도와 밀접한 관계로 삼남 지방 문화의 중심지로 성장해왔다. 또한 마한과 백제 시대로부터 문화적 전통으로 중추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다. 전라북도에서 솟대(사진 II-5)는 마을의 앞산이 화산(火山)이라 물에 오리를 만들어 세움으로써 화재를 방지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새와 머리 방향을 장성군 백양사 학바위를 보도록 하였다.³⁶⁾

전북지역은 특징으로 솟대 위의 오리는 머리를 서북쪽을 행하여 있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러한 이유는 액, 잡귀, 병마를 쫓는다는 의미와 마을의 화재를 막아주는 기능을 한다는 두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었다.³⁷⁾

(6) 경기도의 솟대

경기도는 역사, 정치, 경제의 핵인 수도 서울의 주변에 자리하며 한국문화의 중심지이다. 이 지역 솟대(사진 II-6)의 재질적 특징은 돌보다는 나무로 만들어졌으며, 마을제의 주신(主神) 또는 하위 신으로 세워졌다. 전국적으로 공동체적 신앙 대상물인 솟대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지만 경기도의 장승백이, 벽수골, 수살막, 진대배기의 지명이 전해지고 있다. 또한 광주군, 김포군, 시흥군, 파주군, 강화군에 솟대가 밀집되어 있다. 솟대

35) 국립민속박물관, 전남지방 장승·솟대신앙, 1996, p.238.

36) 국립민속박물관, 전북지방 장승·솟대신앙, 1994, p.198.

37) 국립민속박물관, 전북지방 장승·솟대신앙, 1994, pp.361-362.

가 장승과 함께 세워진 경우 액막이와 풍농 모두를 기원하는 기능을 갖지만 단독으로 세워진 경우에는 액막이 혹은 풍농의 특정 기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예를 들어 강화 외포리의 수살목은 오방(5方)으로 새를 얹혀 각 방향으로 침입하는 액과 부정한 것으로부터 마을을 지키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여겨졌다. 이와는 다르게 파주 광탄면의 솟대는 단독으로 마을 입구와 출구에 세워져 액막이 기능보다는 풍농을 기원하는 의미로 강조되었으며, 이곳의 모든 새의 방향은 마을 입구를 향하게 하였다. 한편 경기도 내에서도 서울 북한강 북쪽보다는 남쪽인 광주군, 시흥군 지역에 솟대가 밀집되어 있다. 광주 지역에서는 장승과 솟대의 복합 양상을 띠었고 마을에서 배산임수(背山臨水)의 조건을 가진 곳에 강을 끼고 큰 냇가에 솟대가 세워졌다. 장승과 솟대는 마을의 안녕과 풍농을 기원하는 역할을 하며, 이정표 기능도 하였다. 솟대의 새는 주로 기러기나 오리로 보통 1마리씩이지만 외포리만 5마리인 특이성을 나타냈다.³⁸⁾

(7) 경상남도의 솟대

경상남도는 우리나라의 동쪽 남단에 자리 잡고 있어 동해를 접하고, 남쪽으로는 남해, 북쪽으로는 경상북도, 남동쪽으로는 대한해협의 대마도, 서쪽으로는 전라북도와 마주 보고 있어 여러 방향으로 왕래를 할 수 있는 교통의 요지이다. 이러한 지리적 특성으로 독특한 문화를 형성하는 계기가 마련되어서인지 해양성 내륙문화를 창출해 왔다. 이 지역은 전통의 맥을 지키는 터전답게 마을 신앙의 대상물로서 솟대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사진 II-7). 솟대 신앙은 8개 곳에 남아 있다. 특이한 점은 솟대 위에 올려놓은 새가 대부분 오리인데 통영시 산양읍 곤리 마을에서는 고니를 올려놓았다.

38) 국립민속박물관, 경기지방 장승·솟대신앙, 1998, pp.35-36.

또한 밀양시 부북면 대항1동 한목 마을의 경우 180cm 밖에 안 되는 작은 솟대를 남 장승 옆에 세우고 거릿대, 오릿대, 별신대, 배선대 등의 이름으로 불렀다. 그중 오릿대, 배선대라는 명칭이 세 곳에서 나타나 이 지역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였다. 특히 배선대라는 명칭은 주로 해안가에서, 오릿대라는 명칭은 내륙지역에서 사용되었다.³⁹⁾

(8) 경상북도의 솟대

경상북도는 우리나라 동남부에 있는 태백산맥과 소백산맥으로 둘러싸여 독자적인 문화를 형성하여 선사시대 이래 유구한 역사를 가지며, 삼국통일의 터전이 되기도 하였다. 영남지방의 골막이(골맥이) 신앙으로 경상북도의 솟대는 마을의 일상생활에서 질병, 화재, 재액으로 오는 불안과 공포를 해소시키고 소망과 기대를 가지게 하는 정신적 지주이자 신뢰의 구심점이 되었다. 솟대의 소재로는 돌로 된 짐대가 남아 있는데 군위군 부계면 진동단(鎭洞壇)이 대표적이다. 이는 마을의 평안을 지키고 기원하는 장소임을 뜻했다. 솟대(사진 II-8)에 대한 명칭은 새를 기준으로 안동 도산면에서는 오릿대라고 하였다고 또한 배의 형국으로 돛대를 달아야 태평 무사하다고 하여 돛대를 세웠다고도 하였다. 영일 기계면 문성동에서는 세워놓은 큰 나무, 솟아있는 나무, 솔나무를 함축된 솟대로 호칭하거나 기능적 의미를 강조하여 성주 기둥이라고도 불렀다. 경북지방에서 신간의 위치는 대부분 마을 입구가 신성한 재당터였다. 재료는 소나무로 오리나 기러기를 한 마리를 올렸다. 조선시대 과거급제의 영향으로 만들어진 솟대에는 용, 학, 봉 등을 새겨 놓아 급제자의 집 문이나 선산의 선영에 세워둔 사례도 있었다.⁴⁰⁾

39) 국립민속박물관, 경남지방 장승·솟대신앙, 1997, pp.2-4.

40) 국립민속박물관, 경북지방 장승·솟대신앙, 1990, pp.26-27.

(9) 제주도의 솟대

제주도는 돌, 바람, 여자 등이 많다 하여 삼다도로 알려진 우리나라 최남단에 위치한 섬이다. 자연 환경은 난대성 해양기후를 지니고 있으며, 식생과 환경이 본토와는 다르다. 따라서 문화적으로 본토와는 다른 남방 문화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신비로운 자연경관과 18,000천여 신들의 이야기가 있어 신들의 섬이라 할 정도로 문화적 독특성을 가지고 있다.

<사진 II-9>와 같이 제주 지역에서도 제주시 화북2동 옷골 남쪽, 북제주군 한림면 대림리, 자릴막러리 동쪽에 솔대(솟대)를 세워 제를 지냈으며, 남원읍 남원리 운주금 동쪽에 격대(솟대)를, 성산읍 신흥리 신흥광 서쪽에 솟대가 서 있었던 기록이 있다.⁴¹⁾



<사진 II-2>

강원 삼척시 원덕읍 임원리의 솟대
출처 : 국립민속 박물관 홈페이지
<https://url.kr/qDQMtK>



<사진 II-3>

충남 공주군 탄천면 송학리의 솟대
출처 : 국립민속 박물관 홈페이지
<https://url.kr/F1rEUK>

41) 국립민속박물관, 경남지방. 장승·솟대신앙, 1997, pp.598-600.



<사진 II-4>

충북 영동군 용산면 율리1구의 솟대
출처 : 국립민속 박물관 홈페이지
<https://url.kr/4ajMZJ>



<사진 II-5>

전남 해남군 송지면 금강리의 솟대
출처 : 국립민속 박물관 홈페이지
<https://url.kr/tfCcWm>



<사진 II-6>

전북 순창군 정산리 솟대
출처 : 국립민속 박물관
<https://www.nfm.go.kr/user/publbook/home/116>



<사진 II-7>

경기 파주시 광탄면 용미4리의 솟대
출처 : 국립민속 박물관 홈페이지
<http://efw.nfm.go.kr/service/book/archive/111/293969>



<사진 II-8>

경남 밀양시 부북면 대항1리 아랫마을의
숫대

출처 : 국립민속 박물관 홈페이지
<https://url.kr/elQ3IG>



<사진 II-9>

경북 안동시 도산면 태자1동의 숫대
출처 : 국립민속 박물관 홈페이지

<https://url.kr/zCcG7x>



<사진 II-10>

제주 제주시 삼양3동의 숫대
출처 : 국립민속 박물관 홈페이지

<https://url.kr/e4ovys>

3. 솟대 문화의 형성 배경

1) 자연적 배경

우리나라는 동북아시아에 속하는 아시아 대륙의 동남쪽에 있는 반도 국가로 동해, 서해, 남해의 삼면이 바다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서해안과 남해안은 굴곡이 심하며 많은 섬들을 이루고 있다. 서쪽은 중국 대륙의 황해가 흐르며, 남쪽은 대한해협으로 일본과 마주 보고 있고, 북쪽은 중국 만주지방과 접경을 이루고 있다.

한반도의 자연환경은 북부, 중부, 남부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북부의 개마고원과 그 주위의 해발 2,000m 이상의 산지가 동해안을 향하고 있으며 고원지대에는 상수리나무, 소나무 등의 산림자원이 풍부하다. 중부 역시 태백산맥을 분수령으로 아름다운 산들로 이어져 있다. 이는 오랜 세월의 풍화작용으로 산맥이라 하기에는 비교적 낮은 산들이지만 기암과 절벽으로 산세가 아름답고 뛰어나다. 남부는 소백산을 중심으로 남해를 향하고 있고 긴 강과 넓은 평야가 이어져 호남평야와 나주평야는 대표적인 곡창지대이다.⁴²⁾

국토는 70% 이상이 산지와 구릉지대로 되어 있고 지형은 북쪽과 동쪽이 높고 서쪽과 남쪽이 낮다. 강의 흐름은 동쪽으로 흐르는 강은 급류가 많고 서쪽이나 남쪽은 완만하여 분지와 평야를 이루고 있다. 또한 계절에 따라 자연의 재해를 겪는 특징이 있다. 특히 여름에는 장마와 태풍으로 집중호우가 내리고 남해안과 제주 지역에서는 태풍의 피해가 크게 발생하며 산사태의 위험도 존재한다.

야니기 무네요시(1889-1961)는 ‘한 나라의 문화를 그 자연이나 풍토에서 완전히 분리 할 수 없다’ 고 말한 바 있다. 솟대가 한반도 전 지역에서 존

42) 김약사 만물 다락소, 한국의 자연과 사계절 그리고 세시풍속. r-pin,tistory.com

재해은 것은 자연적인 배경으로 흑한, 흑서, 폭우, 홍수, 산사태, 태풍 등의 기후에 대한 현상이 사계절의 영향으로 다양하며 이러한 자연 현상들이 생활과 밀착되었기 때문이다.⁴³⁾ 이러한 자연환경의 배경하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솟대에 사용되는 나무는 특별히 정해지지는 않았으나, 주로 많이 활용된 것으로는 소나무를 들 수 있다. 소나무와 우리 민족과의 관계는 솟대의 소재가 지니는 형태와 의미를 연결 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소나무의 형태는 누구나 쉽게 구별할 수 있다. 소나무는 한반도 북부의 아고산대를 제외한 전국에 분포한다. 상록 침엽 교목으로 적갈색을 띠며 노목의 껍질은 흑갈색으로 거칠고 두껍다. 잎은 바늘잎인 침엽(針葉) 2개가 있고 아랫부분에 아린(芽鱗)이 있어 2년 동안 가지에 매달려 있다가 가을에 낙엽이 된다. 열매는 솔방울로 타원형 날개가 있다.⁴⁴⁾

애국가에도 등장하는 소나무는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나무이면서 상징적인 문화요소를 가지고 있다. 이는 십장생 중에 하나로 영생과 풍요를 기원하는 나무이기도 하다. 또 한 동신목, 당산목을 상징하여 강원도 옥계면의 주민들은 소나무를 수호신으로 여기고 있으며 경기도 고양시 원흥동의 150년생 소나무의 경우 당산목으로 관리가 되고 있다.⁴⁵⁾

소나무를 의례에 사용하는 별신제의 경우 송림 중 한 그루를 지정하여 나무 금줄을 치고 ‘성신신목’ 이라고 이름 지어 신성시하였고, 아릅드리 거목으로 자란 것을 사당을 짓는 데 사용했다. 신목을 별채할 때는 반드시 목욕 재계를 하고, 희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은 후 나무 앞에 제를 모시고 나서 제단 앞으로 엄숙하게 가지고 갔으며 이때 사람들은 고개를 숙여 경의를 표하기도 하였다.⁴⁶⁾

43) 이유미, 초·중등 학생과 교사의 자연관 분석 및 자연관 이해를 바탕으로 한 과학 수업설계 방안: 한국인의 전통적 자연관의 특징 분석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pp.51-52.

44) <http://terms.naver.com/print.nhn?docId=2430739&cid>

45) https://blog.naver.com/kma_131/221534008478

46) 노성미, 별신대 제의적 기능 연구: 마산지역 별신대를 중심으로, 비교민속학, 44, 2011.

2) 신앙적 배경

인간은 삶을 위해 혈연이나 지연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자연과의 조화를 유지하며 삶을 영속하기 노력한다. 그러나 때로는 초월적인 한계에 부딪히게 되고 자연의 신앙으로 믿었던 상징들을 구체화하여 표징으로 만드는 작업을 통해 한계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러한 노력은 초월적인 대상에게 기원을 하며 공동체적인 질서와 상부상조의 결속을 맺도록 하였다. 이렇게 행해온 의식은 민간신앙으로 정의되어 오랜 역사를 가지게 된다. 민간신앙(Folk-religion)은 시기를 구분하여 지신밟기, 동신제, 계절제 등과 같이 해가 바뀔 때마다 비슷한 시기에 행해지는 주기적인 신앙, 필요에 의해 행해지는 비주기적인 신앙으로 구분된다.⁴⁷⁾

마을공동체적 민간신앙은 한국인의 삶 속에서 정신적 유대와 강화의 기능을 발휘해 고대부터 오늘날까지 전승되어온 역사성을 지녀왔다.⁴⁸⁾ 이는 국가, 부족, 씨족 단위의 공동체에 시원적 의미를 지니며 화목과 단합 그리고 정화가 이루어지게 한다.⁴⁹⁾ 또 한 심적인 조화와 일치를 향한 염원을 만들며 공동체의 화합과 자연과의 소통을 통해 생명에 대한 경외심을 느끼게 한다.

민간 신앙물의 하나인 솟대는 마을 지킴이로 액운을 물리치며 소원과 경축을 위한 표징으로 전승되어왔다.⁵⁰⁾ 마을 신앙을 대표하는 동제(洞祭) 가운데 솟대 역시 신앙적 표현물이다. 이러한 동제의 목적은 인간의 삶에 중요한 우순풍조, 무사 안녕, 부귀 재화, 무병장수, 만사형통, 마을 태평 등에 있으며 이에 대한 기원을 위해 동제를 지낼 때마다 축문으로 고하게 된다.⁵¹⁾

p.475.

47) 성신여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한국문화 속의 종교, 성신여대출판부, 1987, p.149.

48) 김태근, 무속과 령의 세계, 한울, 1993, p.175.

49) 장주근, 한국의 향토신앙, 을유문화사, 1975, p.49.

50) 강석진, 한국인의 전통적 종교심성과 그리스도교 영성 토착화 연구, 카톨릭신학대학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pp.15-16.

3) 인본적 배경

우리나라에서 솟대는 인간의 삶 가운데 교육의 중요성을 내포하는 상징적 의미도 지녔다. 대표적으로 조선 시대 과거급제를 통한 입신양명(立身揚名)의 상징으로 급제한 사람의 가문에서는 급제자가 속한 가문임을 나타내고자 화주대(華柱臺): 과거급제 기념 솟대인 솟대를 세웠다. 이처럼 솟대가 과거에 급제한 개인과 가문의 징표로 세워진 것은 우리나라 교육의 목적은 바른 인성을 갖춘 사람됨에 이르러 수신제가치국(修身齊家治國)을 지향하는 삶의 구현에 있었기 때문이었다.⁵²⁾

조선을 건국한 신홍 사대부의 통치이념인 성리학은 유교 국가를 건설하여 문물제도를 정비하였다. 성리학은 인간 행위의 근거를 자연의 질서처럼 기본적으로 인륜(人倫)을 배우고 실천하는 교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곧 심성적인 바탕의 덕목으로 예의염치(禮義廉恥)를 중시하고, 이러한 심성의 상태가 발현되어 나타나는 효제충신(孝弟忠信)을 이행해나가야 한다고 보았던 것이다.⁵³⁾

경상북도 청송에 위치한 명지서당을 건립한 이는 명지재(明智齋) 민추(閔樞, 1526~1604)로 그는 자신이 거처하는 집에 서재 몇 동을 열고 후학을 가르치는 장소로 삼았다. 민추는 평생에 걸쳐 성리학 연구를 통해 인간과 세계의 본질을 해명하는 데에 전력을 다했다. 당시 일대의 선비 중 민추의 문하에서 배우지 않은 이가 없을 정도였다. 명지서당에서는 1950년대 초반까지 한학을 가르쳤으며 그때까지만 해도 마을에는 화주대가 많았다⁵⁴⁾고 한다. 이러한 화주대는 인간의 삶의 뿌리가 되는 교육의 가치와 의미를 생각하는 우리 민족의 정신적 표현물인 셈이다.

51) 최길성, 마을신앙, 한국민속대백과사전 7권, 한국정신문화연구소, 1991, p.565.

52) 이필영, 솟대, 대원사, 1990. p.31.

53) 이원재, 조선시대 수험생들의 인성 실태, 교육학연구 56(1), 2018, pp.3-4.

54) <https://www.yeongnam.com/web/view.php?key=20180627.010130741080001>

4) 조형적 배경

솟대의 조형적 상징은 주변환경과 어울려지는 장소성을 내포하며 특히 하늘과 땅의 공간을 이용한다. 이는 우리나라의 조형적 특징으로 자연에서 느껴지는 단순한 소박미와 인위적이지 않고 편안함을 느끼는 여백미를 발현한다.

조형적으로 솟대는 첫째 수직과 수평의 기본 구조로 만들어진다. 높은 하늘 위를 향하는 긴 장대의 모양에서 새 모양과 장대가 만난다. 솟대의 장대는 직선의 구조를 잘 표현하는 부분이며 이러한 수직적 구조는 힘과 에너지를 느끼게 한다. 수직에 상반되는 수평적 대비는 단순하면서도 안정감을 보여준다. 즉 솟대는 수직의 힘과 수평의 조용하고 평화적 느낌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⁵⁵⁾

둘째 솟대를 세우는 장소가 자연의 능선, 평원, 해안이라는 점은 한국적인 여백의 공간미도 함께 갖고 있는 것으로 이는 곧 자연 속에서 조화를 만들어내는 여백의 미다.⁵⁶⁾ 솟대의 이미지를 좀 더 한국적인 특징으로 보이도록 하는 여백은 하늘, 평야, 강 그리고 바다의 광활함 속에서 존재하는 공간 이미지의 표현이다. 즉 수직과 수평, 공간의 메시지로 솟대가 한국의 단아한 이미지로 표현되는 효과를 가져온다.

솟대의 조형적 이미지는 한국인의 깊은 역사안에 잠재 되어진 정서적 표현과 한국인의 예술적 감성의 표현물이다. 즉 단순성, 여백미를 조형예술로 함축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민족이 만들어온 솟대의 조형적 배경에는 역사, 사회, 문화, 자연, 신앙, 생활 등의 다양한 요인들의 공존에서 비롯되었다고 하겠다.

55) 박효정. 솟대의 Image를 통한 형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p.25.

56) 이우환, 여백의예술이란 무엇인가, YouTuve,2015. <https://www.youtube.com/watch?v=rxNy7gpMt2o>

4. 솟대 문화의 콘텐츠화

문화는 전통을 이어가는 수단으로 시대의 가치, 관습, 법, 지식, 예술 등의 뿌리로 연결되고 전해진다. 따라서 전통문화는 정신적이든 물질적이든 오랜 시간을 통해 형성되며 시대에 맞게 변형되온 것이다. 유네스코 국제회의(UNESCO world conference on cultural policies)에서는 광의의 문화란 ‘어떤 사회나 집단의 성격을 나타내는 독특한 영적, 물질적, 지적, 정서적 특성들의 총체적 복합체로 그것은 예술과 문자뿐만 아니라 삶의 양식, 인간의 기본권, 가치체계, 전통, 믿음을 포함한다’고 정의하였다.⁵⁷⁾ 따라서 문화적 공유를 함께하는 집단 구성원들의 가치관 또는 사고방식은 그대로 반영된다.⁵⁸⁾ 문화적 정체성은 전통으로 이어지며, 전통문화의 고유성은 글로벌 시대에 국가적, 사회적 경쟁력이 되기도 한다. 즉 21세기는 문화의 세기로 문화는 각 나라의 정체성으로 그 민족의 고유성과 민족적 특징을 나타낸다. 이는 국가 내부적으로는 국민들의 응집과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으며, 외부적으로 국가 경쟁력의 원동력이 된다. 이러한 이유로 국가마다 자국의 문화적 전통의 가치를 문화콘텐츠 활성화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문화의 중요성을 법으로 명시하여 대한민국 헌법 제9조에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또 한 산업화의 진행과 사회적인 관심을 받은 전통문화에 대하여 정부는 1972년 ‘문화예술진흥법’을 제정하고 1974년에는 문예 진흥 5개년을 수립하여 전통문화적 관심을 부각시켰다. 한편 1999년에는 5천년의 역사로 이어온 우리의 문화적 전통의 가치를 문화콘텐츠로 발전시키고자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이 제정되었다. 문화콘텐츠는 정치/경제/생업, 종교/신앙, 인

57) 김은정, 한국 전통문화 콘텐츠의 대중화를 위한 연구,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9, pp.5-12.

58) 박숙영, 문화간 의사소통을 위한 가치문화 교육방안,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7, p.49.

물, 문학, 의/식/주, 회화, 미술/공예, 음악, 과학기술/의약, 천문/풍수, 의례/놀이/연회 등의 전통문화원형이 창작의 중요한 모티브로 활용되어 새롭게 탄생된 창작물을 의미한다. 이는 오랜 역사를 지닌 우리나라에 다양하게 축적된 전통적인 문화원형에 새로운 창의력과 상상력 그리고 제작기술을 더해 만들어진 문화상품이다.⁵⁹⁾

우리나라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서 문화원형을 콘텐츠로 활용하는 것과 관련된 정의를 살펴보면 먼저 ‘콘텐츠’란 부호·문자·도형·색채·음성·음향·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하며 ‘문화콘텐츠’는 문화적 요소가 체화된 콘텐츠를 뜻한다. ‘문화상품’은 예술성·창의성·오락성·여가성·대중성(이하 문화적 요소라 함)이 체화(體化)되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형·무형의 재화(문화콘텐츠, 디지털문화콘텐츠 및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를 포함)와 그 서비스 및 이들의 복합체를 뜻한다. 문화콘텐츠는 문화산업의 토대가 되는데 ‘문화산업’이란 문화상품의 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을 한다.⁶⁰⁾

59) 문화콘텐츠닷컴, <http://culturecontent.kr/html/htmlpage.do?page=info/understand.html>

60) 법제처, 문화산업진흥기본법, <http://www.law.go.kr>

<표 II -2>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명시된 문화산업의 범위

구분	문화산업의 범위
가.	영화·비디오물과 관련된 산업
나.	음악·게임과 관련된 산업
다.	출판·인쇄·정기간행물과 관련된 산업
라.	방송영상물과 관련된 산업
마.	문화제와 관련된 산업
바.	만화·캐릭터·애니메이션·에듀테인먼트·모바일문화콘텐츠·디자인·광고·공연·미술품·공예품과 관련된 산업
사.	디지털문화콘텐츠, 사용자제작문화콘텐츠 및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의 수집·가공·개발·제작·생산·저장·검색·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
아.	대중문화예술산업
자.	전통적인 소재와 기법을 활용하여 상품의 생산과 유통이 이루어지는 산업으로서 의상, 조형물, 장식용품, 소품 및 생활용품 등과 관련된 산업
차.	문화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전시회·박람회·건본시장 및 축제 등과 관련된 산업.
카.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각 문화산업 중 둘 이상이 혼합된 산업

출처: 법제처, 문화산업진흥기본법, <http://www.law.go.kr>

다음의 <표 II-2>를 살펴보면 문화콘텐츠와 연관된 문화산업은 영화, 음악, 게임, 출판, 방송, 만화, 캐릭터, 애니메이션, 에듀테인먼트, 디지털문화 콘텐츠, 디자인, 광고, 공연, 미술품, 공예품, 대중문화예술, 의상, 조형물, 장식품, 소품, 생활용품, 전시회, 박람회, 축제 등으로 그 범위가 매우 폭넓음을 알 수 있다. 이 가운데 ‘에듀테인먼트’란 문화콘텐츠를 유기적으로 복합시켜 기획 및 제작되어 교육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문화콘텐츠의 제작과 산업적인 활용을 위해 문화원형의 발굴과 재해석에 대한 노력이 중요한 시점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솟대 문화는 자연적, 신앙적, 인본적, 조형적 배경을 내포하며 오랜 세월 동안 계승, 발전되어 왔다. 즉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자연적 환경, 공동체 사회의 민간신앙, 교육을 중시한 인본적인 삶, 조형적 예술의 특성까지 더해져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솟대는 앞으로 창의적, 심미적 측면의 가치를 새롭게 가미하여 한국적인 이미지를 반영하는 문화콘텐츠로서 활용 가능성을 충분히 높일 수 있다. 또한 국내외적으로 대중들에게 솟대의 의미를 전달하는 전시회와 교육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공예품 제작 등을 통해 문화상품으로서의 가치도 발현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문화원형으로서 전통 솟대에 기반을 두고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명시된 문화산업 가운데 전시문화콘텐츠, 공예문화콘텐츠, 교육문화콘텐츠로의 활용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Ⅲ. 전통 솟대를 활용한 문화콘텐츠 사례분석

1. 전시문화콘텐츠

전시(Exhibition)란 정해진 공간에 의도하는 사물을 배치하여 그 사물에 내재된 특정한 의미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행위로 전시회 혹은 전람회라고 부른다.⁶¹⁾ 솟대는 역사성과 대중성이 공존할 수 있는 전시문화콘텐츠가 되고 있다. 한국적인 이미지의 상징인 솟대에 대한 작가들의 창의적 표현과 예술적 감각으로 전시회가 구성되고 전시를 보러 오는 관람객들에게는 전시 공간이 여가를 위한 하나의 장(場)으로 발전이 되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전통 솟대를 활용한 다양한 작품으로 전시문화콘텐츠를 기획해나가고 있는 대한민국솟대작가협회의 전시회에 출품된 작품을 사례로 분석해보기로 한다.

1) 대한민국 솟대작가협회의 발족

대한민국솟대작가협회는 우리의 민족유산인 조형적 솟대 작품이 실외에 조성되어야 한다는 인식에서 벗어나 실내에서도 솟대를 감상할 수 있도록 솟대의 창의적 예술성을 연구하여 발전시키기 위해 조직된 단체이다. 2002년 2월 2일 김준길(김해), 임영규(광주), 김광수(춘천), 임왕규(영주), 김재철(충주), 윤정귀(광주), 심재연(문경)이 주축이 되어 첫 모임을 개최하였다.⁶²⁾

이 협회는 2011년 광주민속박물관에서 처음으로 솟대 단체전을 기획하였

61) 이태현, 한국 도예전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8, p.4에서 재인용.

62) 대한민국솟대작가협회, <http://cafe.daum.net/sosdae-club/7u7D/1>

고 이후 정기적으로 전시회를 개최하여 2020년 제 9회에 이르렀다. 현재 활동 중인 작가로는 신종국, 심재연, 박주오, 윤정귀, 남영춘, 김기철, 김숙경, 고재봉, 신경균, 류재희, 김대기, 이재명, 이기수, 양동기, 강병주, 김동환, 박찬식, 이성교, 이찬진, 박종욱, 안풍길, 김광수, 홍용철, 문시중 등이 있다.⁶³⁾ 이들 솟대 작가들은 전국에서 솟대 연구와 작품 활동으로 개인전시도 활발히 이행하고 있다. 다음의 <표 III-1>은 대한민국 솟대작가협회가 개최한 제 1회부터 제 9회까지 전시 기간, 장소, 주최, 제목을 정리한 것이며 <사진 III-1>은 전시 도록의 표지를 제시한 것이다. 전시회의 제목을 살펴보면 제 1회는 <소망을 담고 나는 새, 솟대>, 제 2회는 <8道 솟대 4人展>, 제 3회는 <DMZ평화.생명.통일 8道 솟대展>, 제 4회는 <대한민국솟대작가전>, 제 5회는 <그곳, 그리운 바다 솟대>, 제 6회는 <솟대 ‘하늘 내린’ 인제를 날다>, 제 7회는 <솟대, 정남진을 날다>, 제 8회는 <서울시정원박람회 솟대전시회>, 제 9회는 <대한민국솟대작가협회전시회>였다. 이처럼 전국적으로 솟대 전시가 이루어져 왔다. 또한 전통 솟대를 예술적 창작으로 승화시키는 대한민국솟대작가협회의 작품을 통해 다양한 전시문화콘텐츠가 기획, 제작되어 일반인들의 관심과 이해의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대한민국솟대작가협회의 발족 이후 몇몇 지역에서는 솟대를 창작하는 모임이나 단체가 만들어 지고 있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 2015년 3월에는 울산 솟대작가협회가 창립 발대식을 가지고 2016년 단체전을 개최하였다(사진 III-2).⁶⁴⁾ 2017년에는 대경솟대작가협회도 발족해 2017년 11월 6일부터 17일까지 경산우체국 갤러리에서 제 1회 정기 회원전을 열었다(사진 III-3).⁶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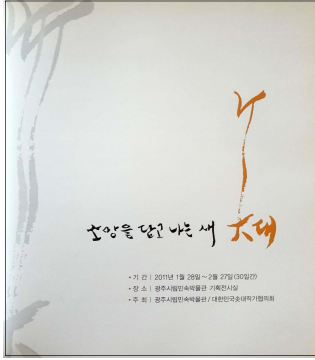
63) <http://cafe.daum.net/sosdae-club/7u7D>

64) <http://blog.daum.net/hyun9682/14311306>

65) <http://www.ksinews.co.kr/mobile/view.asp?intNum=25865>

<표 III-1> 대한민국 솫대작가협회의 제 1회~제 9회 전시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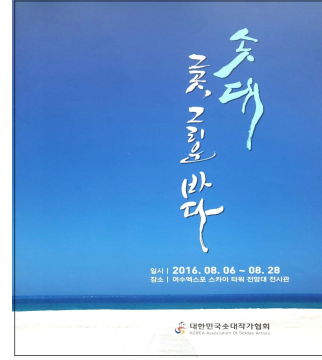
구분	전시 기간	전시 장소	전시 주최	전시 제목
1회	2011.01.28-02.27	광주시립민속 박물관	광주시립민속 박물관/대한민국 솫대작가협회	소망을 담고 나는 새 솫대
2회	2013.10.8-10.13	전라남도 잠월미술관	대한민국솫대작가협회	8道 솫대 4人展
3회	2014.05.03-06.01	한국DMZ평화생명동산 전시실	한국DMZ평화생명동산/대한민국 솫대작가협회	DMZ평화.생명.통일 8道 솫대展
4회	2015.10.08-10.18	경남 산청군 동의보감촌	산림조합중앙회/대한민국솫대작가협회	대한민국솫대작가전
5회	2016.08.06-08.28	여수엑스포 스카이다워 전망대 전시관	대한민국솫대작가협회	그곳, 그리운 바다 솫대
6회	2018.10.5-10.14	강원 인제군 나르샤파크	산림조합중앙회/대한민국솫대작가협회	솫대 ‘하늘 내린’ 인제를 날다
7회	2019.10.11-10.20	장흥 탐진천 산림문화 박람회장	산림청/산림조합중앙회/대한민국 솫대작가협회	솫대, 정남진을 날다
8회	2019.10.3.-10.9	서울시 만리동광장	서울특별시/대한민국솫대작가협회	서울시 정원박람회 솫대 전시회
9회	2020.07.25-08.25	서울아름솫대	대한민국솫대작가협회/아름솫대	대한민국솫대작가협회 전시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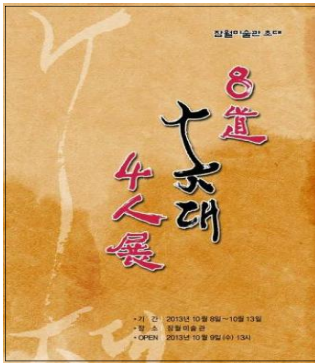
제 1회(2011년)



제 2회(2013년)



제 3회(2014년)



제 4회(201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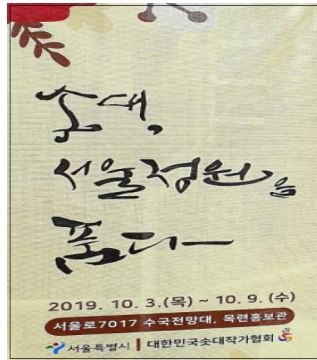
제 5회(201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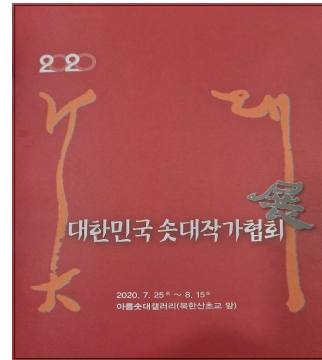
제 6회(2018년)



제 7회(2019년)



제 8회(2019년)



제 9회(2020년)

<사진 III-1> 대한민국숫대협회 전시 도록



<사진 III-2> 2016년 울산 북구청 솫대전

출처: <http://blog.daum.net/hyun9682/14311474?category=403881>



<사진 III-3> 2017년 대구경북솫대작가협회 초대 정기전

출처: <http://www.ksinews.co.kr/mobile/view.asp?intNum=258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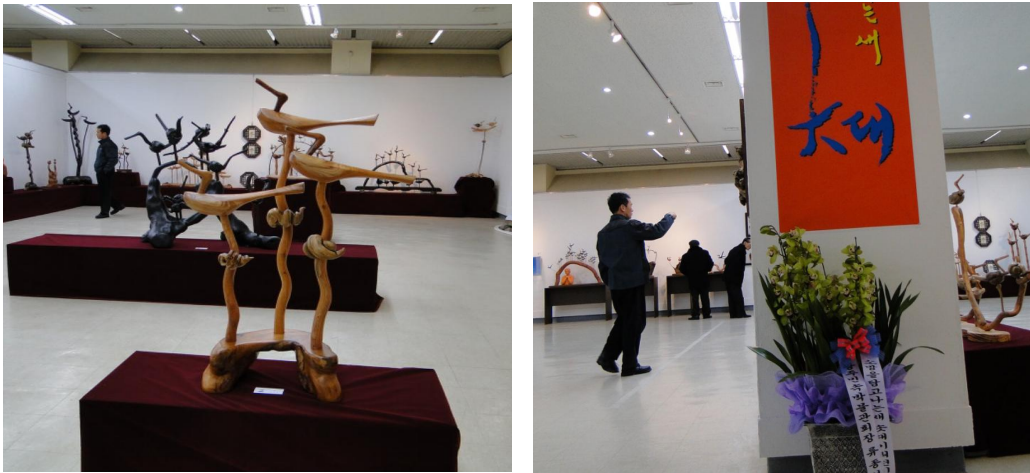
2) 대한민국 솟대작가협회의 전시문화콘텐츠

(1) 제 1회 <소망을 담은 새, 솟대> 전시

대한민국 솟대작가협회에서는 광주시립민속박물관에서 2011년 새해를 맞아 창립 전시회를 개최하였다.

전시에 참여한 작가와 작품명은 김재철의 ‘오복’, 심재연의 ‘희망을 향한 염원’, 윤정귀의 ‘상념’, 김준길의 ‘나르샤’, 문시종의 ‘하늘나라 새들의 이야기1’, 안복순의 ‘솟대와 도자기’, 김기철의 ‘전진’, 한옥희의 ‘화합’, 남영춘의 ‘꿈꾸는 가족’, 임영규의 ‘봄 소풍’ 이었다.

이와 같은 제 1회 <소망을 담은 새, 솟대> 전시문화콘텐츠의 주요 특징은 단체를 조직하여 처음으로 일반들에게 솟대의 예술성, 한국적 이미지의 조형성, 개인 창작 작품으로서의 표현성과 다양성 등을 소개하며 솟대를 한 해의 소망을 담은 새로 상징화한 것이었다.



<사진 III-4> 대한민국 솟대작가협회 제 1회 전시

출처 : <http://cafe.daum.net/sosdae-club/7u7D/32>

(2) 제 2회 <8道 솟대 4人展> 전시

제 2회는 전남 함평군 해보면 산내리에 위치한 잠월미술관의 초청으로 솟대 전시를 개최하였다. 이는 대한민국솟대작가협회의 작가 4인전으로 구성되었다.

참여한 작가와 작품명은 심재연의 ‘사랑을 위하여’, 신종국의 ‘기다림’, 윤정귀의 ‘상념’, 남영춘의 ‘언덕 위의 희망가’ 였다.

이와 같이 잠월미술관에서 이루어진 전시문화콘텐츠의 주요 특징은 창작 작품으로서 솟대의 예술적 가치를 인정받는 기회가 된 것이었다. 기존의 미술관들에서 전시되는 솟대는 상징적 의미로 해석되는 정도였다. 그러나 제 2회 <8道 솟대 4人展> 전시는 한국적인 조형예술로서 솟대를 개인의 창작 예술품으로 해석하게 된 의미 있는 계기가 되었다.



<사진 III-5> 대한민국 솟대작가협회 제 2회 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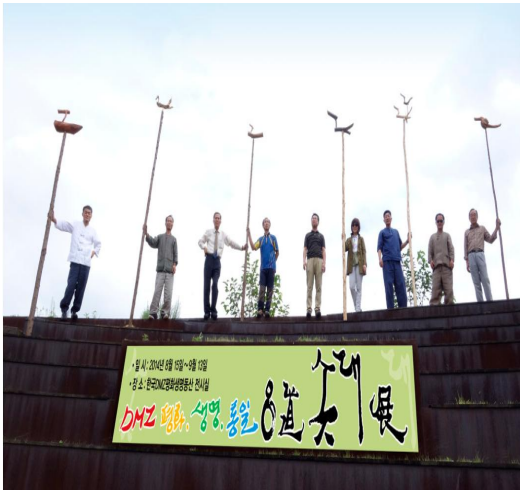
출처: <http://cafe.daum.net/sosdae-club/7u7D/132>

(3) 제 3회 <DMZ평화.생명.통일 8道 솟대展> 전시

제 3회 전시가 개최된 한국DMZ평화생명동산은 강원도 인제군에 위치하고 있다. 이곳은 우리나라가 분단국가로서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지를 느낄 수 있는 장소이다.

전시의 참여 작가와 작품명은 심재연의 ‘부부행진’, 윤정귀의 ‘한마음’, 김준길의 ‘절친한 친구’, 남영춘의 ‘통일의 기상’, 김기철의 ‘풍어기원’, 신종국의 ‘평일 기원’, 안풍길의 ‘天1’, 김숙경의 ‘사랑’, 고재봉의 ‘희망 그리고 안부’, 조병목의 ‘부심’ 이었다.

이와 같은 제 3회 <DMZ평화.생명.통일 8道 솟대展> 전시문화콘텐츠의 주요 특징은 솟대를 활용하여 남과 북의 통일에 대한 염원을 기원하는 의미를 전달한 것이었다.



<사진 III-6>대한민국 솟대작가협회
제 3회 전시

출처: <http://cafe.daum.net/sosdae-club/7u7D/162>

2014 DMZ평화생명통일 민회와 8도 솟대전 개최



2014 DMZ평화생명통일 민회와 8도 솟대전 개막행사가 15일 오전 10시 한국DMZ평화생명동산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한국DMZ평화생명동산 정성현 이사장을 비롯해 이순선 인제군수, 대한민국솟대작가협회 심재연 회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사진 III-7> 대한민국 솟대작가협회
제 3회 전시 기사(2014.08.15.)

출처: <http://cafe.daum.net/sosdae-club/7u7D/161>

(4) 제 4회 <대한민국솟대작가전> 전시

제 4회 전시는 경남 산청군 동의보감촌에서 산림중앙회의 초대전으로 개최되었다.

이 전시회에 참여한 작가와 작품명은 심재연의 ‘사랑을 위하여’, 윤정귀의 ‘상념’, 김준길의 ‘난새’, 남영춘의 ‘나래를 펴고’, 김기철의 ‘가족’, 신종국의 ‘평화의 행진’, 김숙경의 ‘아름다운 인연’, 고재봉의 ‘삶의 향기’, 안영기의 ‘사고의 전환’ 이었다.

이와 같은 제 4회 <대한민국솟대작가전>의 전시문화콘텐츠의 주요 특징은 국토의 70%가 산인 우리나라에서 산림을 유용한 자원으로 활용, 발전시키고자 문화콘텐츠로 솟대를 활용한 노력에 있었다. 이에 솟대 전시는 우리의 역사 속에서 나무로 만들어진 솟대의 의미를 되새기고 예술적 가치를 조명하였다.



<사진 III-8> 대한민국 솟대작가협회 제 4회 전시

출처: 좌측 사진- <http://cafe.daum.net/sosdae-club/7u7D/223>

우측 사진- <http://m.blog.daum.net/sosdaesjk/278>

(5) 제 5회 <그곳, 그리운 바다 솟대> 전시

제 5회 전시는 전라남도 여수에서 세계박람회가 개최되어 엑스포 전망대에서 개최되었다.

참여한 작가와 작품명은 심재연의 ‘그리운 그곳으로’, 김준길의 ‘세상’, 윤정귀의 ‘상념II’, 남영준의 ‘전진’, 김기철의 ‘무제’, 신종국의 ‘노래합니다’, 김숙경의 ‘행복한 여정’, 고재봉의 ‘무제’, 안영기의 ‘번뇌’ 였다.

이와 같은 제 5회 <그곳, 그리운 바닷 솟대> 전시문화콘텐츠의 주요 특징은 여수 바다가 보이는 곳에서 솟대가 풍어의 상징이 되었던 역사를 재현한 것이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산이 많은 나라이지만 또한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으므로 엑스포 전망대의 솟대 전시는 바다와 솟대의 의미가 강조되는 전시였다.



<사진 III-9> 대한민국 솟대작가협회 제 5회 전시

출처: <http://cafe.daum.net/sosdae-club/7u7D/271>

(6) 제 6회 <숫대 ‘하늘 내린’ 인제를 날다> 전시

제 6회 전시는 강원도 인제군 나르샤파크의 산림박물관 내에서 개최되었다. 이곳에서 대한민국 숫대작가협회는 숫대 전시를 실외와 실내에서 설치하여 창의적인 예술로 발전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참여한 작가와 작품명은 신종국의 ‘평화의 종’, 심재연의 ‘소망’, 김준길의 ‘비행’, 윤정귀의 ‘상념-여인’, 김기철의 ‘비상’, 남영춘의 ‘날마다 행복’, 김숙경의 ‘풍경’, 고재봉의 ‘흔적’, 박종욱·홍용철·지두수의 ‘님을 향하여’, 신경균의 ‘만사형통’, 류재희의 ‘합시다 사랑’, 김홍식의 ‘옛 추억 그뻔 그랬지’, 김대기의 ‘숫대등’, 김종국의 ‘동행’ 이었다.

이와 같은 제 6회 <숫대 ‘하늘 내린’ 인제를 날다> 전시문화콘텐츠의 주요 특징은 목기와 나무로 유명한 인제 지역에서 나무를 활용하는 숫대의 예술적 창의성에 관심을 불러일으킨 점에 있었다.



<사진 III-10> 대한민국 숫대작가협회 제 6회 전시

출처: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daichung&logNo=221374667230>

(7) 제 7회 <숫대, 정남진을 날다> 전시

제 7회 전시는 전라남도 장흥에서 개최된 산림박람회 초청으로 8도의 숫대 작품들로 구성되었다. 산림박람회 초청전시로는 세 번째로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다. 이 전시회에 참여한 작가와 작품명은 신종국의 ‘기도하는 마음’, 김기철의 ‘향수’, 남영춘의 ‘날마다 행복’, 김대기의 ‘기다림’, 김동환의 ‘석문으로 가는 길’, 신경균의 ‘해탈’, 윤정귀의 ‘상념’, 심재연의 ‘나래’, 박찬식의 ‘부창부수’, 류재희의 ‘화촉’, 김숙경의 ‘사랑’ 이었다.

이와 같은 제 7회 <숫대, 정남진을 날다> 전시문화콘텐츠의 주요 특징은 우리 문화의 옛 모습과 정취가 남아 있는 장흥 지역에서 전통사회의 풍농과 풍어의 염원을 재현하여 숫대의 원형적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한 점이었다.



<사진 III-11> 대한민국 숫대작가협회 제 7회 전시

출처: <http://cafe.daum.net/sosdae-club/7u7D/424>

(8) 제 8회 <서울시정원박람회 솟대전시회> 전시

제 8회 전시는 서울시의 정원박람회의 초대전으로 개최되어진 대한민국 솟대작가협회 회원전이였다.

참여한 작가와 작품명은 신종국의 ‘평화의 행진’, 심재연의 ‘행복’, 김준길의 ‘하늘’, 김기철의 ‘인연’, 윤정귀의 ‘저 구름 흘러가는 곳’, 김숙경의 ‘소망을 품다’, 고재봉의 ‘남쪽 바다’, 박종욱의 ‘나들이’, 신경균의 ‘해탈’, 김대기의 ‘기다림’, 류재희의 ‘생명’, 박찬식의 ‘삶의 여정’, 김동환의 ‘바람의 언덕에 피는 꽃’, 남영춘의 ‘가족’ 이었다.

이와 같은 제 8회 <서울시정원박람회 솟대전시회> 전시문화콘텐츠의 주요 특징은 지금까지의 솟대 전시가 지방에서 진행이 되거나 산림청(산림조합중앙회) 주최의 전시였던 것에서 벗어나 가장 큰 도시인 서울에서 대중들과 직접 만나게 된 점이였다. 또한 다양한 소재의 변화로 솟대 작품이 연출되어 예술의 창작적 범위를 확장 시킨 전시이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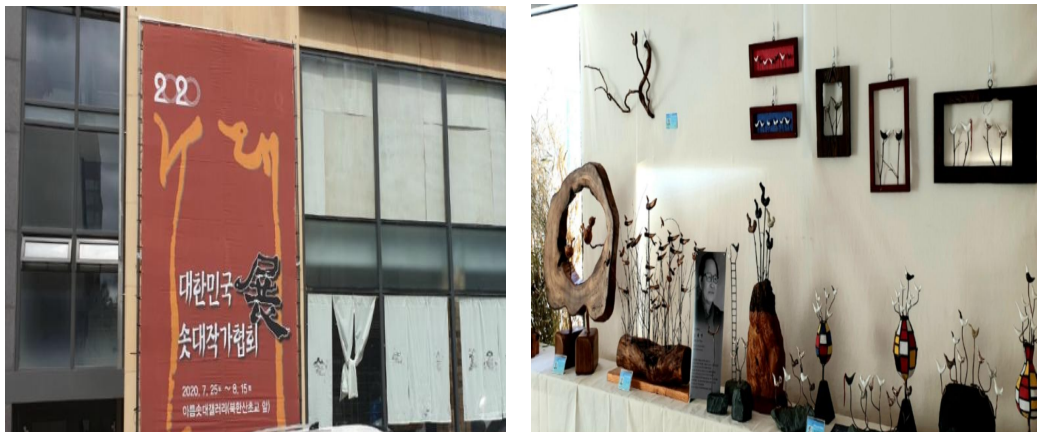
<사진 III-12> 대한민국솟대작가협회 제 8회 전시

출처: 3cafe.daum.net/sosdae-club/7u7D/42

(9) 제 9회 <대한민국솥대작가협회> 전시

제 9회 전시는 서울의 북한산 자락에 위치한 아름솥대에서 개최되었다. 참여한 작가와 작품은 심재연의 ‘몬드리안 무늬를 이용한 솥대’, 신종국의 ‘소망을 담고’, 윤정귀의 ‘코로나 위기 속의 희망’, 남영춘의 ‘희망을 열다’, 김기철의 ‘대박기원’, 김숙경의 ‘북한산 아래 솥대’, 김동환의 ‘동행’, 신경균의 ‘오방솥대’, 김대기의 ‘행복’, 박찬식의 ‘화무심’, 류재희의 ‘만남’, 이성교의 ‘용트림’, 강병주의 ‘하늘을 향한 희망’, 이기수의 ‘가족애’, 이재명의 ‘비상’, 양동기의 ‘속삭임’, 이진선의 ‘행복의 시작’ 이었다.

이와 같은 제 9회 <대한민국솥대작가협회> 전시문화콘텐츠의 주요 특징은 규모에 있어 가장 많은 전국의 솥대 작가들의 참여로 이루어진 점이였다. 또한 솥대에 대한 연구와 전시가 병행되는 장소에서 솥대에 대한 학술적 측면이 새롭게 조명되었다.



<사진 III-13> 대한민국솥대작가협회 제 9회 전시

출처: <http://cafe.daum.net/sosdae-club/7u7D/431>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한민국 솟대작가협회는 꾸준한 연구와 기획을 통해 솟대를 전시문화콘텐츠로 활용하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2011년 협회는 광주시립민속박물관에서 <소망을 담고 나는 새, 솟대>라는 제목으로 처음으로 단체전을 시작하여, 매회마다 다양한 솟대들을 전시하고 소개해왔다. 협회에서는 2004년을 기점으로 실내 솟대를 만들기 시작하였지만, 2011년의 전시는 공식적으로 실내 솟대를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본래 자연에서 산출된 소재로 제작된 신앙적 의미를 지녔던 솟대의 모습을 이제는 마을 어귀나 평야에서만 볼 수 있는 시대는 지나가고 있다. 솟대는 실외에서만이 아닌 실내에서도 보고 즐길 수 있는 전시문화콘텐츠가 된 것이다.

문화콘텐츠로서 실내·외에서 전시되는 솟대는 예술성, 창의성, 여가성을 반영한다. 첫 번째로 예술성의 측면에서 솟대는 심미적인 조형물로 발전되어가고 있다. 아직은 솟대를 작품으로 하는 단체와 개인 작가의 수가 많은 것은 아니지만 꾸준히 그 수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전통 솟대의 이미지를 기반으로 하는 작품을 제작하는 노력이 계속된다면 예술적 측면을 더욱 성장시켜 한국적인 문화콘텐츠로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다.

두 번째로 창의성의 측면에서 솟대는 그를 전시하는 공간의 문화적 기능이 활성화되는 연결 효과도 창출할 수 있다. 오늘날 솟대 전시는 문화공간 내에서 실내 작품으로 연출이 가능하게 되었다. 실내 전시는 소재와 작품의 다양성을 표출하여 솟대를 관람하는 사람들에게 솟대가 전시된 공간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인식의 변화를 이끄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이는 솟대가 예술적 가치와 더불어 경제적 가치도 지닌 문화콘텐츠로 인정받음을 말해준다.

세 번째로 여가성의 측면에서 솟대 전시는 관람객들에게 문화적 여가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여가의 일환으로 솟대 전시를 관람하

는 것은 문화예술의 활동으로 일상에서 지친 심신에 새로운 활력을 도모할 수 있다.⁶⁶⁾ 우리 사회에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전시문화콘텐츠로 활용되는 솟대는 국민들의 여가생활 가운데 친숙하게 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게 될 것이다.

2. 공예문화콘텐츠

공예(工藝)는 인간의 삶 속에서 주로 사용되며 재료, 의장(意匠), 기교 등에 의해 미적 효과를 가진 도구와 물품을 제작하는 실용성의 가치를 갖는 점이 회화나 조각과는 구별된다.⁶⁷⁾ 공예의 본질은 쓰임이지만 아름다움과 결부가 되는 공예문화콘텐츠는 그 실용적인 요소로 인해 공예문화산업의 성격인 대량생산의 체계(system)와 결합하여 유통구조의 조성이 가능하다.⁶⁸⁾

이에 공예문화콘텐츠로서의 솟대는 한국적인 이미지를 활용하여 예술성, 창의성과 더불어 실용적인 대중성이 결합 되어 발전을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대한민국기능전승자회⁶⁹⁾, 아릅솟대, 솟대가 있는 풍경 등의 세 곳에서 공예문화상품으로 제작된 장식용품과 생활용품으로 구분해 주요 특징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66) 서혜경, 직장인의 문화예술 여가활동 참가가 여가 만족과 직무 만족 및 생활 만족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p.13.

67) 박수경, 칠보공예문화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 국민대학교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p.35.

우리나라에서는 1881년 조선 정부의 외교문서의 내용에서 처음 공예라는 용어가 사용되었으며 공예는 공업이나 산업과 같은 개념으로 인공으로 만들어진 모든 산물을 뜻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정의 내려지고 있다.

68) <https://www.namu.moe/w/%EA%B3%B5%EC%98%88>

69) 1995년에 발족한 대한민국 기능전승자회는 고용노동부의 산하단체로 전통기능에 관련된 전수자, 계승자, 이수자로 구성되어 다양한 분야의 기능문화를 이어가고 있다. 또한 전통기능 전승에 관심을 갖고 관련 상품을 만들고 있는 신진을 발굴하고자 전통문화상품공모전을 매년 개최하고 있다.

1) 장식용품

장식용품이란 장식에 쓰이는 물품을 뜻한다.⁷⁰⁾ 본 연구에서는 공간에 고정적으로 놓이게 되는 장식용품을 벽걸이용, 탁상용, 바닥용 등의 용도별로 세분하여 장식용품명, 소재, 제작자명(제작년도)을 제시하고 문화콘텐츠로서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표 III-2>.

<표 III-2> 공예문화콘텐츠로서 전통 솟대의 장식용품 사례

구분	장식용품명	소재	제작자명(제작년도)
벽걸이용	송학	나무	이동필(2019)
	희망을 열다	나무	남영춘(2020)
탁상용	희망 솟대 모음	나무	안병규(2020)
	희망과 솟대	나무, 옷, 나전	김숙경(2016)
	소풍	나무	김숙경(2017)
	사랑	나무, 옷	김숙경(2015)
	행복한 하루	나무, 옷, 나전	김숙경(2018)
	날마다 행복	나무, 대나무	남영춘(2019)
	가족	나무	남영춘(2019)
	전진	나무	남영춘(2016)
바닥용	북한산 아래 솟대	나무, 옷	김숙경(2019)

<표 III-2>에서 벽걸이용의 특징은 솟대의 이미지를 활용한 장식용품으 벽에 걸어 감상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사진 III-14>의 ‘송학’은 예로부터 무병장수와 소원성취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학의 이미지를 활용한 솟대로

70) <https://ko.dict.naver.com/#/entry/koko/8f843f2cc04b49bc9da2b3535d9c84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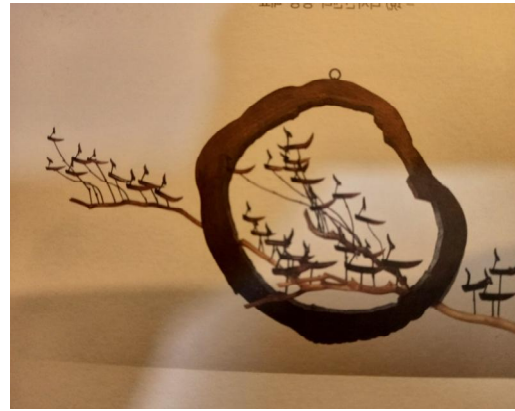
현대적인 디자인이 공존하는 표현이다. <사진 III-15> ‘희망을 열다’는 새 33마리가 비상하는 모습을 형상화하였는데 33이라는 숫자는 새로움을 여는 새해의 보신각 타종 33번의 의미와 동일하게 표현한 것이다.

다음으로 <표 III-2>를 살펴보면 탁상용의 사례가 가장 많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장식용품을 탁자 위에 올려놓을 수 있도록 제작한 것이다. <사진 III-16>의 ‘희망과 솟대’는 솟대를 이용한 보석함을 나전과 솟대 조형을 함께 이용한 것이다. 즉 솟대의 이미지를 조형과 평면의 나전을 함께 사용하여 솟대의 이미지의 다양성을 나타냈다. <사진 III-17>의 ‘소품’은 받침대 소재로 박달나무를 이용하여 작품을 구성하였다. 박달나무의 견고함이 가족은 언제나 든든한 삶을 지켜주는 곳이라는 생각으로 가족의 삶을 표현한 것이다. <사진 III-18>의 ‘가족’은 4인 가족의 꿈과 희망을 기원하는 모습을 담았다. <사진 III-19>의 ‘행복한 하루’는 솟대 군무의 모습을 나전으로 표현하여 솟대의 소박한 모습과 나전의 화려함의 조화로 행복한 모습을 반영하였다. <사진 III-20>의 ‘사랑’은 사랑으로 모든 것은 치유되며, 모든 것을 기쁘게 바라볼 수 있는 가장 강한 힘을 지니고 있는 것을 상징하였다. <사진 III-21>의 ‘전진’은 마치 군함이 바다를 가르며 나가는 듯한 모습을 표현하였다. <사진 III-22>의 ‘희망 솟대 모임’은 희망과 기원을 상징하는 솟대를 재료의 한계에서 벗어나 전통과 아우르는 소품으로 표현하였다. <사진 III-23>의 ‘날마다 행복’은 솟대 365개를 엮어 매일매일 행복을 바라는 마음을 반영하였다.

한편 바닥용으로 제작된 <사진 III-24>의 ‘북한산 아래 솟대’는 오랜 세월 북한산의 기운을 담고 있는 북한산 계곡의 느티나무로 북한산의 산맥을 표현하였다. 서울의 명산인 북한산은 수도 서울의 명소로 우리 민족의 안식처이다. 아름다운 북한산의 모습에서 솟대를 연출하여 평화와 안녕을 그리고 염원하는 마음을 담고 있다.



〈사진 III-14〉 장식용품1. 송학
출처: 2018 대한민국전승자회
(이동필)



〈사진 III-15〉 장식용품2. 희망을 열다
출처: 2020 대한민국솥대작가협회
(남영춘)



〈사진 III-16〉 장식용품3. 희망과 솥대
출처: 2016 대한민국전승자회(김숙경)



〈사진 III-17〉 장식용품4. 소꿉
출처: 2017 아릅솥대(김숙경)



〈사진 III-18〉 장식용품5. 가족
출처: 2019 대한민국솟대작가협회
(남영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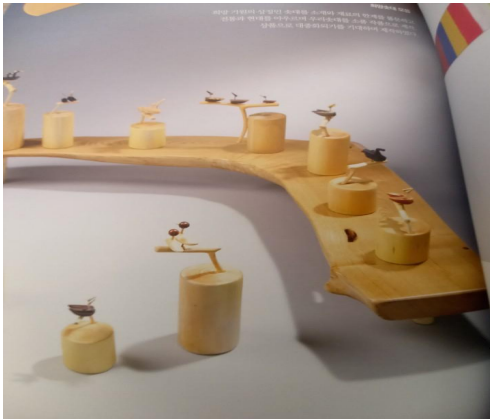
〈사진 III-19〉 장식용품6. 행복한 하루
출처: 2018 아름솟대(김숙경)



〈사진 III-20〉 장식용품7. 사랑
출처: 2015 아름솟대(김숙경)



〈사진 III-21〉 장식용품8. 전진
출처: 2016 대한민국솟대작가협회(남영춘)



<사진 III-22> 장식용품9. 희망솥대모음
출처: 2020 대한민국전승자회(안병규)



<사진 III-23> 장식용품10. 날마다 행복
출처: 2019 대한민국솥대작가협회(남영춘)



<사진 III-24> 장식용품12. 북한산 아래 솥대
출처: 2020 대한민국솥대작가협회(김숙경)

2) 생활용품

대중들이 생활 속에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생활용품은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등의 용도별로 세분하여 생활용품명, 소재, 제작자명(제작년도)을 정리하였다<표Ⅲ-3>.

<표 Ⅲ-3> 공예문화콘텐츠로서 전통 솟대의 생활용품 사례

구분	생활용품명	소재	제작자명(제작년도)
의생활	솟대 비너	나무	조경아(2015)
	행복 목걸이	나무	김숙경(2016)
식생활	솟대 다식함	나무	김숙경(2015)
	솟대 옷칠 트레이	나무, 삼베	김숙경(2019)
	행복한 하루(다기)	도자기	김숙경(2020)
	꿈(식기)	나무, 옷	김숙경(2018)
	우리들의 희망들(차탁)	나무, 옷, 나전	김숙경(2016)
주생활	장승(필기구)	나무	김효영(2015)
	기다림(촛대)	대나무	송용운(2018)
	솟대.바람.피지다(향꽂이)	나무	신민용(2020)
	나전솟대풍경(걸이용)	나전, 삼베	김숙경(2018)
	솟대 향초	나무	김숙경(2018)
	솟대 등(燈)	나무, 한지	남영춘(2019)
	솟대 풍경(액자)	나무, 한지, 동	남영춘(2019)
	솟대 캘리(액자)	나무, 한지	남영춘(2017)

〈표 III-3〉에서 의생활용품은 몸이나 옷에 부착하여 연출하는 효과를 이용한 것으로 〈사진 III-25〉의 ‘숫대장식비녀’는 전통적으로 마을의 안녕을 지켜주는 수호신 역할을 하던 숫대를 활용해 사용하는 사람을 보호해주는 의미를 주고자 한 것이다. 또한 꽃, 나뭇잎, 바람, 구름, 산 등의 자연 소재를 형상화하는 숫대를 엮은 모양이다. 〈사진 III-26〉의 ‘행복’은 의복과 함께 착용할 수 있도록 가벼운 나무에 구멍을 뚫어 작은 숫대의 이미지가 표현되도록 하였다. 이는 희망을 상징하는 숫대를 항상 착용해 기분 좋게 행복한 하루하루를 만들어 보자는 느낌으로 제작한 것이다.

식생활용품은 식생활 가운데 활용이 되는 다양한 용기나 기물에 숫대의 이미지를 활용한 것이다. 〈사진 III-27〉의 ‘숫대 다식함’은 찻자리 모임에서 다식을 넣어 두어놓는 용도이다. 오늘날 차 생활은 사람들이 소통을 나누는 매개이자 정신적 문화로 자리하고 있다. 다식함의 뚜껑 부분에 조형적 숫대의 모양을 엮어 한국적인 다식함에 숫대 이미지를 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진 III-28〉의 ‘숫대 옷칠트레이’는 삼베를 이용하여 땅의 모습을 표현하고, 숫대는 옷칠 그림으로 단아하게 나타내 편안함과 소박함으로 사용되는 쟁반을 만든 것이다. 〈사진 III-29〉의 ‘행복한 하루’는 차 생활에 이용하는 도자기의 표면에 숫대의 이미지를 그려 넣은 것이다. 차 도구의 문양으로 숫대의 한국적 느낌의 정서가 표현되도록 하였다. 〈사진 III-30〉의 ‘꿈’은 나무의 결을 이용하여 옷칠로 마무리한 주발에 숫대의 이미지를 활용한 식기이다. 〈사진 III-31〉의 ‘우리의 희망들’은 조형적 숫대와 나전 숫대를 함께 결합하여 숫대의 이미지를 극대화한 것이다. 차탁으로 또는 핸드폰을 올려놓을 수 있도록 만들어 기존 숫대의 소박한 이미지를 벗어나 화려한 숫대의 느낌을 가졌다.



<사진 III-25> 생활용품1. 숯대장식비녀
출처: 2015 대한민국전승자회(조경아)



<사진 III-26> 생활용품1. 행복
출처: 2016 아릅숯대(김숙경)



<사진 III-27> 생활용품3. 숯대 다식함
출처: 2015 아릅숯대(김숙경)



<사진 III-28> 생활용품4. 숯대옷칠트레이
출처: 2019 아릅숯대(김숙경)



<사진 III-29> 생활용품5. 행복한 하루
출처: 2020 대한민국전승자회(김숙경)



<사진 III-30> 생활용품6. 꿈
출처: 2018 아름숫대(김숙경)



<사진 III-31> 생활용품7.
우리의 희망들
출처: 2018 서울디자인재단(김숙경)

다음으로 주 생활용품은 인테리어를 위한 소품으로 사용이 되는 것이다. <사진 III-32>의 ‘장승’은 마을을 지켜주는 장승을 전통문화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솟대를 연결한 연필이다. <사진 III-33>의 ‘기다림’은 4차 산업 혁명의 IT 기술로 만들어져 소리에 반응하는 인공지능의 기능과 공예품 솟대를 접목한 것으로 가족의 안녕과 행복을 기다림으로 표현하였다. <사진 III-34>의 ‘솟대. 바람. 퍼지다’는 마을 입구에 우뚝 서서 마을의 풍요와 안녕을 기원해 주던 솟대를 모티브로 향 받침대로 제작한 것이다.

<사진 III-35>의 ‘나전 솟대 풍경’은 사찰에서 물고기 모양으로 사용되는 풍경을 응용한 것이다. 이는 삼베 호칠에 나전 솟대를 붙인 것으로 아래에 종을 달아 소리를 내는 풍경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또한 평면적인 솟대의 이미지에서 오는 간결하지만 조용한 느낌을 나전으로 표현해 심미적인 안정감을 주고자 한 것이다. <사진 III-36>의 ‘솟대 향초’는 향초의 은은한 향기와 불빛의 시각적 효과에 솟대를 세워 정서적으로 편안함을 반영하였다. <사진 III-37>의 ‘솟대 전등’은 한지를 이용해 등을 만든 것이다. 또한 캘리그래피를 이용하여 좋은 글귀를 덧붙여 솟대와 한지 불빛이 소망을 기원하는 느낌을 부드럽게 표현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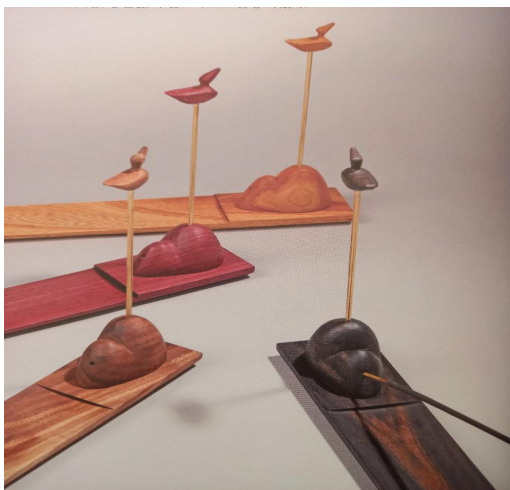
<사진 III-38>의 ‘비익조’는 하나의 몸에 하나의 날개만 가지고 있어 둘이 있어야만 날 수 있다고 하는 전설의 새이다. 평생을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아름다운 부부의 사랑을 비익조의 문구로 작성하고 솟대로 함께 표현하였다. <사진 III-39>의 ‘솟대 캘리 액자’는 열정으로 모든 일에 임하는 자세가 운명을 압도하여 꿈을 이루게 된다는 인생에 대한 깊이 있는 생각을 하는 내용을 담았다.



〈사진 III-32〉 생활용품8. 장승
출처: 2015 대한민국전승자회(김효영)



〈사진 III-33〉 생활용품9. 기다림
출처: 2018 대한민국전승자회(송용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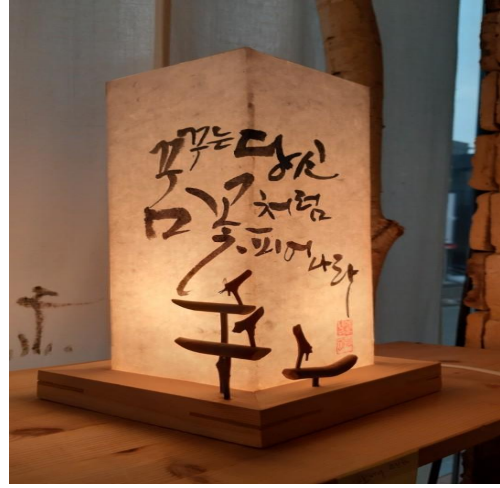
〈사진 III-34〉 생활용품10.
솟대, 바람, 퍼지다
출처: 2020 대한민국전승자회(신민웅)



〈사진 III-35〉 생활용품11.
나전 솟대 풍경
출처: 2018 아름솟대(김숙경)



<사진 III-36> 생활용품12. 숯대향초
출처: 2018 아름숯대(김숙경)



<사진 III-37> 생활용품13. 숯대 등(燈)
출처: 2019 숯대가 있는 풍경(남영춘)



<사진 III-38> 생활용품14. 비익조
출처: 2019 숯대가 있는 풍경(남영춘)



<사진 III-39> 생활용품15. 숯대 캘리액자
출처: 2018 숯대가 있는 풍경(남영춘)

이상과 같이 공예문화콘텐츠로서의 전통 솟대는 장식용품과 생활용품이라는 두 가지의 측면에서 꾸준히 제작이 이루어짐으로써 대중들의 생활 속으로 친근하게 들어가고 있다. 예술성, 창의성, 대중성의 측면에서 전통 솟대를 활용한 공예문화콘텐츠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예술은 미적 작품을 형상하는 인간의 활동으로 특수한 소재, 형식, 수단을 활용하여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것이다.⁷¹⁾ 전통 솟대의 이미지를 활용한 장식용품이나 생활용품의 예술적 표현은 문화적인 미(美) 의식을 투영한 것이기도 하다. 2004년 세계박물관협회에서 가장 한국적 이미지로 전통 솟대를 지정한 것은 생활 속에서 누구나 자연스럽게 우리 문화의 예술적 자취를 느낄 수 있는 콘텐츠이기 때문인 것이다.

둘째, 오늘날 솟대는 제작자의 개성을 표현하는 창의적인 공예문화콘텐츠로 발전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IT 기술의 성장은 전통 솟대와 접목이 되어 전통문화에 대한 창의적인 재해석과 문화적 우수성에 대한 평가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솟대의 이미지가 조형, 회화 또는 나전 등으로 표현이 됨으로써 창의적인 발전의 원동력이 커지고 있다. 이는 전통 솟대 문화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에서 나오는 것으로 보여진다.

셋째, 전통 솟대를 활용한 공예는 대중들의 삶 속으로 가까이 다가서고 있다. 벽걸이용, 탁자용, 바닥용의 장식용품은 좁게는 개인으로부터 넓게는 기업이나 기관에서 사용될 수 있는 장식적 가치로 수용이 되고 확산 되어가고 있다. 또한 의식주와 관련된 생활용품들은 대중들이 일상에서 솟대를 보다 가까이 접하고 이해할 수 있는 공예문화콘텐츠로 앞으로의 발전의 가능성이 더욱 확장될 것으로 예측된다.

71) 김종선, 공예,디자인. 예술의 개념 융합을 통한 산업 유형의 특징,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21(3), 2015, p.222.

3. 교육문화콘텐츠

본 연구에서 솫대에 관한 교육문화콘텐츠는 에듀테인먼트로서 솫대를 교육의 주제로 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2014년부터 2020년까지 경기공예협회, 대한민국솫대작가협회가 주관하여 이루어진 솫대 교육을 중심으로 유아 및 청소년, 일반 시민, 특수 대상별로 나누어 사례를 정리하였다.

1) 유아 및 청소년 대상 교육

유아 및 청소년 대상 솫대 교육의 사례는 <표 III-4>에 제시하였다. 먼저 유아를 위한 솫대 교육은 <사진 III-40>에서처럼 공원에서 유아들에게 나무의 느낌을 체험하게 하거나 <사진 III-41>과 같이 목재박람회 전시장에서 유아들에게 우리나라 나무를 소개하고 이용하는 여러 가지 모습을 설명한 후 솫대를 만들어 보도록 하였다.

초등학생 대상 솫대 교육은 <사진 III-42>에서와 같이 학교 교실에서 솫대 제작의 기능체험이 진행되거나 솫대의 역사적인 의미와 그에 담긴 우리 민족의 정서를 이해하는 내용<사진 III-43>으로 교육이 실시 되었다. 또한 <사진 III-44>에서처럼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는 수업으로 가족의 소중함을 솫대를 통해 느끼는 교육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한편 중학생 대상 솫대 교육은 주로 청소년수련관이나 중학교 교실에서 진행이 되었다. <사진 III-45>와 같이 전통문화체험의 측면에서 명사의 솫대 제작 실연 후 학생들이 창의적으로 자신의 솫대를 만들어 보도록 하거나 <사진 III-46>에서처럼 전승되는 전통공예의 일환으로 솫대의 예술성과 가치를 경험하게 하는 교육이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다.

<표 III-4> 유아 및 청소년 대상 전통 솟대 교육문화콘텐츠 사례

구분	교육주제	교육년도	교육장소	주관처	개최처
5-6세 유아	나무와 솟대느낌 알아 보기	2014	부천 소래산공원	경기공예 협회	부천시
	우리나라 나무와 솟대	2017	송도 컨벤션		산림청
6-7세 유아	전통 솟대만들기	2014	부천 상동만화센터	대한민국 솟대작가 협회	경기도
3-4학년 초등학생	장래 나의 소망	2015	인천 용현 초등학교		인천 용현초등학교
1-6학년 초등학생	엄마와 나의 솟대이야기	2014	부천시 옥길동		부천시 범박동 어머니회
	우리전통 문화와 솟대	2020	금골 마을회관		진도교육청
5-6학년 초등학생	전통솟대 만들기	2017	원통 초등학교		원통초등학교
1-3학년 중학생	가족이 함께 소망	2016	부천 산울림청소년 수련관		부천시
	나눔실천	2016	인천 남동구청소년 수련관		인천시
	희망솟대	2013	아름솟대공방		부천시 수주중학교
	한국문화체험	2016	신남중학교		인제시 신남중학교
	명사초정전통 솟대만들기	2014	산북중학교		문경시 산북중학교



<사진 III-40> 부천시 어린이집
 솟대 교육
 출처: <https://url.kr/l2NWLf>(2014)



<사진 III-41> 인천시 송도어린이집
 솟대 교육
 출처: 김숙경 개인소장(2017)



<사진 III-42> 인천시 원통초등학교
 솟대 교육
 출처: 신종국 개인소장(2017)



<사진 III-43> 부천시 범박동 어린이
 솟대 교육
 출처: <https://url.kr/6tcpyB> (2014)



<사진 III-44> 부천시 산울림 청소년 수련관 슷대 교육 1
출처: 김숙경 개인소장(2016)



<사진 III-45> 인제시 원통 신남 중학교
스�대 교육
출처: 신종국 개인소장(2016)



<사진 III-46> 문경시 산북중학교
스�대 교육
출처: 심재연 개인소장(2014)

2) 일반 시민 대상 교육

2015년에서 2018년까지 이루어진 일반 시민 대상 솟대 교육 사례는 다음의 <표 III-5>에 제시하였다.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솟대 교육은 지자체의 광장이나 거리, 문화원, 서원, 한옥마을, 템플스테이정보관, 백화점 등에서 이루어져 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진 III-47>에서처럼 인사동 템플스테이 정보관에서 솟대 전시와 함께 교육이 진행되기도 하고, <사진 III-48>과 같이 시민들에게 솟대를 알리고 각자가 바라는 소망을 담은 솟대를 만들어 가져가는 체험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다음으로 <사진 III-49>에서처럼 전통 솟대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교육으로 문경의 근암서원에서는 ‘전통예절과 민속품’을 주제로 솟대 교육이 진행되기도 하였다.

한편 솟대는 <사진 III-50>과 같이 조선 시대에 과거급제 시 세웠던 화주대의 의미를 수능시험에 적용, 확대하는 상징성을 내포하는 교육이 시도되기도 했다.

<표 III-5> 일반 시민 대상 전통 솟대 교육문화콘텐츠 사례

구분	교육주제	교육년도	교육장소	주관처	개최처
모든 연령의 시민들	전통솟대만들기	2015	서울시 조계사 템플스테이 정보관	대한민국 솟대작가 협회	서울시 조계사 템플스테이 정보관
	솟대와 한국문화	2016	부천시 문화원		부천시문화원
	수능기원과 솟대	2015	인천시 신세계백화점		인천 신세계백화점
	희망 만들기	2016	소래산 만의골 광장		인천시 남동구
	전통예절과 민속품	2018	근암서원		문경시 향교
	K-culture	2015	서울시 광화문광장		대한민국 미술협회
	소망 기원	2017	남산한옥마을		서울문화재단
	자연과 도시	2018	서울시 종로 대학로		서울시 종로구청



〈사진 III-47〉 서울시 조계사
템플스테이 정보관 솟대 교육
출처: <https://url.kr/X7qe4K> (2015)



〈사진 III-48〉 서울시 광화문공원
솟대 교육
출처: <https://url.kr/Kb3eaO> (2015)



〈사진 III-49〉 문경시 근암서원
솟대 교육
출처: 심재연 개인소장(2018)

수능생 위한 희망,소망,기원 등 다양한 행사 열려

기사입력 : 2014년 11월 10일 13시04

(아시아뉴스통신=조기중 기자)



오는 13일 수능을 맞아 신세계인천점이 수능생을 위한 희망,소망,기원에 의미를 담은 특별한 행사를 이만주 16일까지 진행한다. (사진제공=신세계인천점)

〈사진 III-50〉 인천시 신세계백화점
솟대 교육
출처: <https://url.kr/aADLqt>(2015)

3) 특수 대상 교육

2015년에서 2018년의 사례조사로 보아 솟대 교육은 장애인, 외국인, 노인, 군인 등의 특수 대상에게도 실시 되어왔다. <표 III-6>. 사례를 살펴보면 <사진 III-51>에서처럼 장애인복지관의 장애인들과 희망 솟대를 만드는 시간을 가져 정신적 안정감을 부여하고 손으로 자신만의 솟대를 만들어 근육의 움직임도 도왔다. 또한 <사진 III-52>와 같이 경로당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소망을 담은 솟대를 만들어 심리적 안정감을 도모하고 한국의 이미지에 대해 함께 소통하며 예술적 창의성을 표현할 수 있는 솟대 교육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다음으로 <사진 III-53>은 한국문화와 솟대를 주제로 한국으로 수학여행을 온 필리핀 학생들에게 솟대를 교육하여 한국과 자국의 공예문화 간 차이점과 공통점에 대해 서로 소통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한편 솟대 교육은 자연과 함께 하는 힐링 체험이 되기도 했다. <사진 III-54>는 강원도 인제의 군부대에서 힐링캠프를 주제로 훈련에 지친 군인들에게 자연의 소재인 솟대를 매개로 대화를 나누면서 정서적 안정을 갖도록 하는 시간이 되었다.

<표 III-6> 특수 대상 전통 솟대 교육문화콘텐츠 사례

구분	교육주제	교육년도	교육장소	주관처	개최처
장애인	솟대의 활용	2018	수원시 복지관 교육실	대한민국 솟대작가 협회	수원시 장애인복지관
외국인	희망솟대 만들기	2016	화성시 궁평항		화성문화원
	한국문화와 솟대	2018	부천시 산울림청소년 수련관		부천시
노인	소망이야기	2015	부천시 범박동경로당		부천시청
군인	자연과함께 힐링캠프	2018	원통 원채공방		2사단 17연대



<사진 III-51> 수원시 호매실 장애인
복지관 솟대 교육
출처: 박찬식 개인소장(2018)



<사진 III-52> 부천시 범박동 경로당
솟대 교육
출처: <http://blog.daum.net/playsk1/291>
(2015)



〈사진 III-53〉 부천시 산울림 청소년
수련관 솟대 교육2
출처: [http://blog.daum.net/playsk1\(2018\)](http://blog.daum.net/playsk1(2018))



〈사진 III-54〉 인제시 원통 운채 공방
솟대 교육
출처: 신종국 개인소장(2018)

이상과 같이 교육문화콘텐츠로서 솟대는 유아 및 청소년 대상에 있어 5-7세 유아, 1-6학년 초등학생, 1-3학년 중학생 교육으로 진행되었다. 일반 시민의 경우 솟대 교육은 다양한 연령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에서 교육이 이루어졌다. 한편 특수 대상에 대한 솟대 교육은 장애인, 노인, 외국인, 군인 등에게 교육이 이행된 사례였다. 이러한 솟대 교육문화콘텐츠의 주요 특징으로 예술성, 창의성, 오락성의 측면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통 솟대를 활용한 교육문화콘텐츠는 우리의 역사 속에 형성, 발전되어온 솟대 문화의 예술성을 경험하는 기회가 된다. 청소년들이나 일반 성인들을 대상으로 솟대의 역사성을 교육하는 것은 솟대의 고유한 의미와 더불어 우리 민족의 정서가 담긴 예술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게 된다. 또한 외국인 학생들에게 우리나라의 솟대를 소개하고 교육하는 것은 한국문화의 예술성을 체험하는 계기로 활용될 수 있다.

둘째, 솟대 교육은 학습자의 창의성과 개성적인 표현을 촉진할 수 있는 문화콘텐츠이다. 예를 들어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솟대 교육은 전통기능을 체험하도록 하는 측면에서 명사의 솟대 제작 실연이 진행된 후 학생들

이 자유롭게 창의성을 반영하여 자신의 솟대를 만들어 보도록 한다. 이는 학생들의 창의적 발상과 응용을 이끌어 내는 교육이 되는 것은 물론 미래에 솟대 제작과 같은 기능을 이어갈 전수자로서의 꿈을 갖도록 하는 기회도 될 수 있다.

셋째, 자연적 소재를 접하는 교육의 측면에서 솟대 교육문화콘텐츠는 오락성도 내포하고 있다. 유아들에게 나무의 느낌을 체험하게 하거나 노인들이 직접 손으로 자신의 소망을 담은 솟대를 만들어 보는 것은 심리적 안정감을 도모할 수 있다. 또한 군인들의 경우에도 솟대를 만드는 힐링의 체험은 긴장을 완화해 정서적 안정을 갖도록 한다. 이와 더불어 부모와 자녀 대상 교육은 가족이 자연의 소재를 활용해 솟대를 함께 만드는 즐거운 체험이 될 수 있다.

IV. 전통 솟대를 활용한 문화콘텐츠 발전 방안

1. 여가활동 장(場)으로서의 전통 솟대 전시 공간

기존 솟대를 활용한 전시문화콘텐츠의 형태는 예술가와 관람객으로 분리되어왔다. 그러나 앞으로의 전시는 솟대와 더불어 음악, 문학, 공간 등의 다른 문화콘텐츠들이 접목되는 여가활동의 장(場)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즉 솟대가 전시된 공간은 다양한 문화콘텐츠들이 함께 호흡하는 여가문화의 공간으로 발전되어야 하는 것이다.

오늘날 전시문화는 여가생활과 함께 성장하고 있다. 이제 전시는 단순히 작품을 감상하는 장소의 의미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공간적 활용으로 관람객들의 직접적 체험과 문화 습득의 장소로 변모하고 있다.⁷²⁾

이에 솟대를 활용한 전시문화콘텐츠의 구체적인 발전 방안을 제시해보면 첫째, 솟대 전시에 음악을 결합한 공간을 구성하여 전시 주제에 부합되는 음악 공연이 이루어지는 초대전, 개인전, 단체전, 특별전 등이 기획될 수 있다. 둘째, 전통 솟대의 역사적 배경과 문화적 의미가 현대 문학의 정신적 측면과 소통하는 인문학적인 만남이 시도될 수 있다. 셋째, 솟대 전시를 보러 온 관람객들이 창의적으로 자신의 솟대를 제작하는 예술적 체험 활동도 가능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전시문화콘텐츠의 변화는 솟대가 전시되는 공간을 매개로 사람과 사람 그리고 사람과 문화가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교류하는 사회적 기능과 문화적 욕구 충족⁷³⁾의 기능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72) 박연아, 전시문화생활 증진을 위한 개인 서비스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8, p.14.

73) 유민주, 경기지역 문화공간 콘텐츠 개발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p.38.

2. 전통 솟대 문화상품의 대중화

앞서 사례분석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솟대를 활용한 공예문화콘텐츠는 예술성과 창의성이 가미된 장식용품이나 생활용품으로 대중들의 삶 속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

공예문화산업진흥법을 살펴보면 “공예”는 문화적 요소가 반영된 기술, 소재(素材), 문양(文樣) 등을 바탕으로 기능성과 장식성을 추구하는 수작업(부분적 기계 공정이 가미된 것 포함)의 물품을 만드는 일 또는 능력을 말하며 “공예품”은 공예의 결과물로서 실용적, 예술적 가치가 있는 물품으로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적인 기술, 기법이나 소재 등에 근거하여 제작된 전통제품과 현대적인 소재나 기술, 기법을 활용하여 제작된 현대공예의 제품을 포함한다.⁷⁴⁾

이와 같은 정의로 보면 솟대를 활용한 공예문화콘텐츠는 기능성과 장식성을 추구하여 실용적, 예술적 가치를 지닌 문화상품으로 발전의 가능성을 높여야 함을 알 수 있다. 또한 공예문화콘텐츠는 공예문화산업의 관점을 기반으로 보다 폭 넓게 대중들 사이에서 유통되고 소비될 수 있는 대중성도 강화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솟대를 활용한 문화상품에 대한 대중들의 접근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상품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온라인 채널 구축과 각종 상품박람회<표 III-6> 참여⁷⁵⁾ 등이 요구된다. 또한 전통 솟대의 이미지가 장식용품이나 생활용품에서 조형, 회화 또는 나전 등으로 표현이 되거나 IT 기술과 접목된 문화상품으로 제작이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 대중들이 일상에서 보다 친숙하게 솟대를 인식할 수 있도록 공공디자인으로도 개발 및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74) 법제처, 공예문화산업진흥법, <http://www.law.go.kr>.

75) 안명수, 충북지역 공예산업 활성화 발전방안연구, 공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0, p.31.

<표 III-7> 전통 솟대를 활용한 문화상품 관련 박람회

구분	박람회명	박람회 참여 효과
장식 용품	대한민국공예문화박람회, 서울국제불교박람회, 차,공예박람회, 공예박람회, 목재박람회, 우드코리아 등	- 솟대 공예는 다양한 공예품 트렌드와 공유할 가능성이 높아 솟대를 활용한 장식용품을 대중들에게 알리게 됨
생활 용품	핸드메이드코리아, 서울리빙디자인페어, 공예트렌드페어, 청주공예페어 등	- 의.식.주생활에서 이용될 수 있는 솟대를 활용한 생활용품의 발전 양상을 대중들에게 보여주게 됨

출처: 안명수, 충북지역 공예산업 활성화 발전방안연구, 공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0, p.16

3. 체계화된 전통 솟대 에듀테인먼트

전통 솟대를 활용한 교육문화콘텐츠는 한국문화의 유용한 주제로 입체적, 평면적으로 다양한 대상에게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솟대는 나무 외에도 소재 선택의 자유로움을 갖고 있어 교육대상의 창의성과 예술성을 촉진시킬 수 있으며 솟대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직접 만들어 보는 과정에서 즐거움이 유발되는 오락적 체험성도 지니고 있다. 그러나 교육대상의 특성에 부합되는 솟대 교육 콘텐츠 구성의 체계화 작업은 아직 미흡하다. 이로 인해 비전문가에 의한 주먹구구식 교육프로그램이 양적으로 증가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도 있다.⁷⁶⁾

76) 강다영, 문화콘텐츠 평생교육 프로그램 분석, 안동대학교 한국문화산업전문대학원 석사학위

이에 전통 솟대를 활용한 교육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교육대상별로 체계적인 에듀테인먼트(Edutainment) 콘텐츠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다음의 <표 III-9>는 대상별 에듀테인먼트 콘텐츠를 예시한 것으로 먼저 유아교육 및 초등대상의 경우 솟대를 만드는 나무의 느낌을 자유롭게 이야기 하고 자연 소재인 나무 외에도 아이들이 좋아하는 색종이나 스티커 등을 함께 사용하는 재미있는 교육이 진행되도록 한다.

중고등학생의 경우 한국문화로서 전통 솟대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솟대의 의미와 구조에 대한 지식을 갖도록 하며 희망을 상징하는 솟대 제작을 통해 자신의 꿈을 설계하는 시간과도 연결해보도록 한다.

일반 성인들의 경우 한국의 전통적 이미지인 솟대를 예술적으로 재해석하고 직접 제작하고 표현하는 경험을 통해 정서적인 만족을 도모하는 힐링의 체험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나아가 자기 개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

이외에도 전통 솟대에 관련된 교육문화콘텐츠를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는 전문인재양성의 프로그램도 개발⁷⁷⁾되어 에듀테인먼트로서 콘텐츠를 발전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논문, 2014, p.4.

77) 엄대성, 문화콘텐츠 인력 양성을 위한 경제교육의 변화 방향,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2009, p.67.

<표 III-8> 대상별 전통 솟대를 활용한 에듀테인먼트 콘텐츠

교육대상	유아 및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일반 성인
교육주제	재미있는 솟대 놀이	솟대 이야기	희망 솟대 장식용품
교육시간	30분-40분	45-50분	60분
수업재료	솟대모형나무, 풀, 색종이, 색연필	나무, 오죽, 사포, 칼, 붓펜	나무, 오죽, 사포, 칼, 초, 붓펜
학습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솟대나무 모형으로 솟대의 의미 알기 -솟대나무의 촉감 알아보기 -색종이를 찢어 솟대나무 원형에 붙이기 -솟대나무의 이름 지어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솟대의 역사, 의미, 구조 알기 -나무 재료를 사포로 연마하기 -받침목에 오죽을 다듬어 세우기 -오죽 위에 새 꽃기 -솟대 완성 소감 이야기하기 -솟대에 자신의 꿈 적어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솟대의 역사, 상징적 의미, 소재 알기 - 나무 재료를 사포로 연마하기 - 촛불로 오죽 표면 작업하기 - 받침목 위에 희망 메시지 적어보기 - 받침목에 오죽을 다듬어 세우기 - 새를 만들어 솟대 모양 연출하기

V. 결론 및 제언

본 논문은 전통 솟대의 활용성에 중점을 두고 관련된 전시문화콘텐츠, 공예문화콘텐츠, 교육문화콘텐츠의 사례를 조사하여 현황을 분석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안을 연구하는 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자연의 소재로 된 전통 솟대는 조형적으로 소박하고 간결하다. 이는 오랜 역사 속에서 우리 민족에게 풍요와 안녕을 기원하는 신앙적 상징과 더불어 삶에 경축과 희망을 전해주는 인본적 의미도 내포하였다. 또한 하늘을 바라보는 형상에서 솟대는 유연한 힘과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며 인간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 주는 정서적 감정을 느끼게끔 한다. 이러한 솟대의 모습은 과거 우리나라 어디에서든 찾아볼 수 있었지만 일제 강점기 이후로 많은 지역에서 사라지거나 훼손이 되어 자취를 잃어버리기도 했다. 그러나 2004년 세계박물관협회에서 가장 한국적 이미지로 전통 솟대를 지정하면서 세계 속의 한국문화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의 시대를 열게 되었다. 더욱이 솟대는 이제 외부뿐 아니라 실내로 들어와 생활 속의 문화콘텐츠가 되고 있어 이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가 요구되고 있다.

본 사례조사 연구결과를 토대로 전통 솟대를 활용한 문화콘텐츠의 발전 방안을 몇 가지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솟대의 전시문화콘텐츠는 예술성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하는 심미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 솟대를 제작하는 예술가들이 늘어나면서 대한민국솟대작가협회가 발족하여 예술작품에서 다양한 창의적인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앞으로의 솟대 전시 공간은 음악, 문학, 무용 등의 다른 문화콘텐츠들이 접목되는 여가활동의 장(場)으로 변화가 되어야 한다. 즉 솟대 전시 공간에 문화적 기능이 활성화되어 솟대를 관람하는 사람들에게 여

가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는 솟대를 중심으로 한 전 시문화콘텐츠의 발전이 심미적 문화 예술과 여가의 측면을 확장 시키는 의미를 지니게 될 것이다.

둘째, 전통 솟대를 활용한 공예문화콘텐츠는 장식용품과 생활용품의 두 가지 측면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이는 대중들의 삶 속에서 솟대의 이용 가능성을 높일 것이다. 앞으로 공예품으로서의 솟대는 기능성과 장식성을 추구하여 실용적, 예술적 가치를 지닌 문화상품으로 발전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소재의 혁신을 통해 전통 솟대의 이미지가 장식용품이나 생활용품에서 조형, 회화 또는 나전 등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그리고 솟대의 이미지가 IT 기술과도 접목된 참신한 디자인으로 대중들이 일상에서 보다 친숙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개발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문화상품으로서의 솟대가 폭넓게 대중들 사이에서 유통되고 소비가 될 수 있도록 상품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온라인 채널이 구축되고 각종 상품박람회에서도 볼 수 있도록 관련 종사자들의 노력도 이행되어야 한다.

셋째, 교육문화콘텐츠로서의 솟대는 유아 및 청소년, 일반 시민, 특수 대상 등 다양한 학습자들에게 흥미로운 체험 교육의 주제이다. 솟대는 나무 외에도 소재 선택의 자유로움을 갖고 있어 교육대상의 창의성과 예술성을 촉진시킬 수 있다. 또한 솟대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직접 만들어 보는 과정에서 즐거움이 유발되는 오락성도 지니고 있다. 따라서 교육대상별로 체계적인 에듀테인먼트 콘텐츠가 구성이 되어 유아나 초등학생에게는 자연의 나무에 대한 촉감을 직접 느낄 수 있는 재미있는 교육콘텐츠로, 중고등학생 청소년에게는 한국의 전통문화로서 솟대에 대한 이해, 문화적 의미와 구조를 알고 제작을 체험해보는 교육콘텐츠로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일반 성인들에게는 전통 솟대의 상징적 의미를 창의적으로 재해석하고 예술적으로 표현하는 자기계발의 기회로, 심신의 힐링을 도모할 수 있는 교육콘텐츠

츠로 발전된다면, 매우 유용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한국의 문화로서 솟대의 정체성을 교육하고 전승시킬 수 있는 전문인재양성으로 교육문화콘텐츠의 발전을 도모해나가는 제도적 체계도 갖춰 줘야 한다.

결론적으로 예술성과 창의성을 지닌 전통 솟대를 활용하는 문화콘텐츠는 그 영역을 더욱 확장해나가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여가성, 대중성, 오락성의 특성을 강화하여 일상 속에서 전통 솟대 문화에 대한 소통과 향유가 확산이 되는 생활문화로 발전되기를 기대한다.

본 논문은 전통 솟대의 활용 양상을 전시문화콘텐츠, 공예문화콘텐츠, 교육문화콘텐츠로 구분하여 각각의 사례조사를 실시해 현황의 특징을 분석하고 발전 방안을 제시한 점에 연구의 의의를 둔다. 솟대와 관련된 콘텐츠는 문학, 공연 등과 같은 다양한 문화적 접근이 가능할 것이다. 앞으로 후속 논문에서는 솟대를 활용한 다각적인 문화콘텐츠 연구가 시도되어야 할 것이며 인문학, 역사학, 고고학, 미술학 등의 학문 분야와 다학적 접근도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단행본>

- 국립민속박물관, 강원지방 장승·숫대신앙, 1988
- 국립민속박물관, 경기지방 장승·숫대신앙. 1998..
- 국립민속박물관, 경남지방 장승·숫대신앙. 1997
- 국립민속박물관, 경북지방 장승·숫대신앙, 1990.
- 국립민속박물관, 전남지방 장승·숫대신앙, 1996.
- 국립민속박물관, 충남지방 장승·숫대신앙, 1991.
- 국립민속박물관, 충북지방 장승·숫대신앙, 1994.
- 국립민속박물관. 전북지방 장승, 숫대신앙. 1994.
- 김태곤, 무속과령의 세계, 한울, 1993.
- 민족문화추진회, 동국이상국집, 한국학술정보, 2006.
- 성신여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한국문화 속의 종교, 성신여대출판부, 1987.
- 이필영, 숫대, 대원사, 1999.
- 장주근, 한국의 향토신앙, 을유문화사, 1975.
- 최길성, 마을신앙, 한국민속대백과사전 7권, 한국정신문화연구소, 1991.

<논문>

- 강다영, 문화콘텐츠 평생교육 프로그램 분석, 안동대학교 한국문화산업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 강석진, 한국인의 전통적 종교심성과 그리스도교 영성 토착화 연구, 카톨릭신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 김기탁, 동신제와 솟대 신앙: 상주 원흥리의 솟대를 중심으로, 한민족어문학 16, 1989.
- 김세철, 솟대 신앙의 커뮤니케이션적 특성과 의미, 언론과학연구 5(3), 2005.
- 김은정, 한국 전통문화 콘텐츠의 대중화를 위한 연구,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9.
- 김중선, 공예, 디자인, 예술의 개념 융합을 통한 산업 유형의 특징,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21(3), 2015.
- 김중순, 한국문화원류의 해명을 위한 문화적 기호로서 ‘새’의 상징, 계명대학교 한국학논집 56, 2014.
- 나종록, 나무에 나타난 초월적 세계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노성미, 별신대 제의적 기능 연구: 마산지역 별신대를 중심으로, 비교민속학회지 44, 2011.
- 알렉산드라 막시모드, 알타이 문명벨트의 구멍을 위한 야쿠트와 한국문화의 새 상징 비교연구, 계명대학교 한국어교육학과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8.
- 박수경, 칠보공예문화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 국민대학교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 박숙영, 문화간 의사소통을 위한 가치문화 교육방안,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 박연아, 전시문화생활 증진을 위한 개인 서비스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8.
- 박창욱, 개금 기법을 이용한 전통문화상품 디자인 연구, 정보디자인학연구 16, 2011
- 박효정, 솟대의 Image를 통한 형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

- 위논문, 1992.
- 서혜경, 직장인의 문화예술 여가활동 참가가 여가 만족과 직무 만족 및 생
만족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 송화섭, 신라말 밀교의 택지법과 솟대의 기원, 역사민속학 15, 2002.
- 송화섭, 조선 후기 부안의 돌집대와 석당간, 지방사와 지방문화, 15(1), 2012.
- 신호재, 민간신앙에 따른 조형물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
사학위논문, 2002.
- 안명수, 충북지역 공예산업 활성화 발전방안연구, 공주대학교 대학원 석
사학위논문, 2020.
- 엄대성, 문화콘텐츠 인력 양성을 위한 경제교육의 변화 방향, 한국교원대
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 유민주, 경기지역 문화공간 콘텐츠 개발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
문, 2010.
- 이원재, 조선시대 수험생들의 인성 실태, 한국교육학회지 56(1), 2018.
- 이유미, 초·중등학생과 교사의 자연관 분석 및 자연관 이해를 바탕으로
한 과학 수업설계방안,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 이장웅, 한국 고대 새 관념의 변화, 한국고대사탐구학회지 31, 2019.
- 이종철, 입대목 솟대 제의의 등장과 전개에 대한 시론, 한국고고학회지
106, 2018.
- 이태현, 한국 도예전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문화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8.
- 진용하, 한국민족의 기원과 형성에 대한 ‘한 ‘맥 ‘예’ 3부족 결합설, 대한
민국학술원논문집 55(1), 2016.
- 최솔, 한국 전통솟대를 통한 미술문화교육방안 연구, 상명대학교 교육대
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인터넷 사이트>

경산인터넷뉴스: <http://www.ksinews.co.kr/mobile/view.asp?intNum=25865>

공예: <https://www.namu.moe/w/%EA%B3%B5%EC%98%88>

국립민속박물관: <http://efw.nfm.go.kr/service/book/archive/111/293969>

국립민속박물관: <https://url.kr/4ajMZJ>

국립민속박물관: <https://url.kr/e4ovys>

국립민속박물관: <https://url.kr/elQ3IG>

국립민속박물관: <https://url.kr/FIrEUK>

국립민속박물관: <https://url.kr/qDQMtK>

국립민속박물관: <https://url.kr/tfCcWm>

국립민속박물관: <https://url.kr/zCcG7x>

국립민속박물관: <https://www.nfm.go.kr/user/publbook/home/116>

국립중앙박물관: <https://blog.naver.com/ssk567567/221216289291>

김약사 만물다락소: r-pin,tistory.com

네이버 국어사전: <https://url.kr/KNRFiH>

네이버 블로그: https://blog.naver.com/kma_131/221534008478

네이버 블로그: <https://url.kr/MkDdVh>

네이버 지식백과: <http://terms.naver.com/print.nhn?docId=2430739&cid>

대한민국숫대작가협회: 3cafe.daum.net/sosdae-club/7u7D/42

대한민국숫대작가협회: <http://cafe.daum.net/sosdae-club/7u7D>

대한민국숫대작가협회: <http://cafe.daum.net/sosdae-club/7u7D/1>

대한민국숫대작가협회: <http://cafe.daum.net/sosdae-club/7u7D/132>

대한민국숫대작가협회: <http://cafe.daum.net/sosdae-club/7u7D/161>

대한민국숫대작가협회: <http://cafe.daum.net/sosdae-club/7u7D/162>

대한민국숫대작가협회: <http://cafe.daum.net/sosdae-club/7u7D/223>
대한민국숫대작가협회: <http://cafe.daum.net/sosdae-club/7u7D/271>
대한민국숫대작가협회: <http://cafe.daum.net/sosdae-club/7u7D/32>
대한민국숫대작가협회: <http://cafe.daum.net/sosdae-club/7u7D/424;>
대한민국숫대작가협회: <http://cafe.daum.net/sosdae-club/7u7D/431>
대한민국숫대작가협회: <http://m.blog.daum.net/sosdaesjk/278>
문화콘텐츠닷컴: <http://www.culturecontent.com>
법제처: <http://www.law.go.kr>
브레인 미디어: <http://www.brainmedia.co.kr>
아름숫대 페이스북: <https://url.kr/6tcpyB>
아름숫대 페이스북: <https://url.kr/aADLqt>
아름숫대 페이스북: <https://url.kr/Kb3eaO>
아름숫대 페이스북: <https://url.kr/l2NWLf>
아름숫대 페이스북: <https://url.kr/T7fkzP>
아름숫대 페이스북: <https://url.kr/X7qe4K>
영남일보: <https://url.kr/r17av5>
울산숫대작가협회: <http://blog.daum.net/hyun9682/14311306>
울산숫대작가협회: <http://blog.daum.net/hyun9682/14311474?category=403881>
유튜브: <https://www.youtube.com/watch?v=rxNy7gpMt2o>

ABSTRACT

Research on cultural contents by Korea traditional 'Sotdae'

Kim Sook Kyoung

Traditional Cultural Contents Major

Graduate School of Cultural Industry Arts

Sungshin University

This research is based on the traditional Sotdae as a culturally original form. The objective of this research is to propose development trends of cultural contents utilizing the traditional Sotdae among the cultural industries in Korea by nationally and internationally presenting the image and meaning of Sotdae. For this objective the research analyzed examples of educational cultural contents operated by the hands-on programs of Sotdae and handcraft contents, which transfer the value of cultural goods to the general public through production of display cultural contents and Sotdae for decoration and daily life.

The publications of Korea Sotdae Artists Association's exhibitions in 2011 through 2020 were used to study display cultural contents. This study compiled the period, location, organizer and title of the exhibitions and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cultural contents which use the traditional Sotdae in each exhibition. Handcraft cultural contents were studied with photos of materials for decoration and daily life presented in 2015 to 2020 by the following five sources; Korea Skills Transfer Association, Korea Sotdae Artists Association, Seoul Design Foundation, Arum sotdae, and The View with Sotdae. Among them decorative Sotdae to be fixed in space for wall hanging, table top and floor were compiled in detail with title, material and artist's name (date of production).

The Sotdae actually used in the living space were arranged in detail by its use in clothing, food, housing etc and listed for the name of household goods, material and name of the artist (date of production). Also analyzed were characteristics of cultural contents which are reflected by the materials used for decoration and daily life using the traditional Sotdae. Next study was the Edu-entertainment. It is about the Education-cultural contents presented in 2014 to 2020 where Sotdae was used as an educational subject, which were sponsored by the Gyunggi Industrial Association and Korea Sotdae artists Association for children, young people, general public, special group etc. Photos published in these hands-on programs were compiled for this study. Educational subject, year, location, sponsorship and venue using the traditional Sotdae were individually compiled and characteristics of the educational cultural contents were analyzed.

The primary results of the research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Korea Sotdae Artists Association held the first group exhibition entitled <Birds flying with Hope, Sotdae> at the Gwangju Folk Museum. Every

exhibition displayed and introduced various Sotdae. Most of all the 2011 exhibition was a momentum to officially introduce indoor Sotdae. Originally Sotdae was created for outdoor display with traditional belief. But the time has passed to see Sotdae at the entrance of villages or in the field. Sotdae became a display cultural content to view and enjoy indoor as well as outdoor. Second, as a handcraft cultural content the traditional Sotdae engages with the general public in two ways through persistent creation for decoration and daily life. The traditional Sotdae along with the improvement of IT technology during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is connected to evaluate the creative reinterpretation of the traditional culture and its cultural superior. Also the expression of Sotdae in sculpture, painting, and lacquer provides a momentum for creative development. This comes from the pride and self-confidence of the traditional Sotdae culture. Third, the educational culture contents using the traditional Sotdae helps teaching various objects in two and three dimensions as a beneficial subject of Korean culture. Especially Sotdae has a freedom to select materials other than trees, which motivates creativity and artistics of the educational subjects. Recreational hands-on experiences are gained with fun through listening to the Sotdae story and hands-on experience of making Sotdae. In conclusion cultural contents using artistic and creative traditional Sotdae must further expand its territory. To achieve this expansion the Sotdae culture needs to strengthen the characteristics of leisure, popularity, and recreation in our life and the dialogue and pleasure through the traditional Sotdae culture must spread to our daily life culture.